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 맞춤법 제15항과 제18항은 용언이 활용할 때의 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5항은 '웃다, 웃고, 웃으니'처럼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제18항은 '긋다, 그어, 그으니'처럼 ㉠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의 표기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이러한 내용들은 국어사전의 활용의 표기에 반영되어 있다. 아래는 국어사전의 일부를 간추려 제시한 것이다.

> **웃다**
> 발음 [욷:따]
> 활용 웃어[우:서], 웃으니[우:스니], 웃는[운:는]

> **긋다**
> 발음 [귿:따]
> 활용 그어[그어], 그으니[그으니], 긋는[근:는]

동사 '웃다'와 '긋다'의 활용에서 각각 '웃다'와 '긋다'의 활용형과 그 표준 발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용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 즉 '활용 정보'를 통하여 ㉡ 활용 양상이 동일한 용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활용 용언 중 동사 '벗다'는 '벗어, 벗으니, 벗는'처럼 활용하므로 '웃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고, 불규칙 활용 용언 중 '짓다'는 '지어, 지으니, 짓는'처럼 활용하므로 '긋다'와 활용 양상이 동일하다.

[A] 한편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다'의 활용 정보는 '자[자], 자니[자니]'처럼 제시되는데 이때의 활용형 '자'는 '자다'의 어간 '자-'가 어미 '-아'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자'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좋다'는 '좋아[조:아], 좋으니[조:으니]'가 활용 정보에 제시되는데 이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즉 활용 정보에 나타나는 활용형 '자'와 '좋아'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 ㉠과 ㉡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으로 적절한 것은?

① 구르다 – 잠그다
② 흐르다 – 푸르다
③ 뒤집다 – 껴입다
④ 붙잡다 – 정답다
⑤ 캐묻다 – 엿듣다

3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어사전의 표제어와 활용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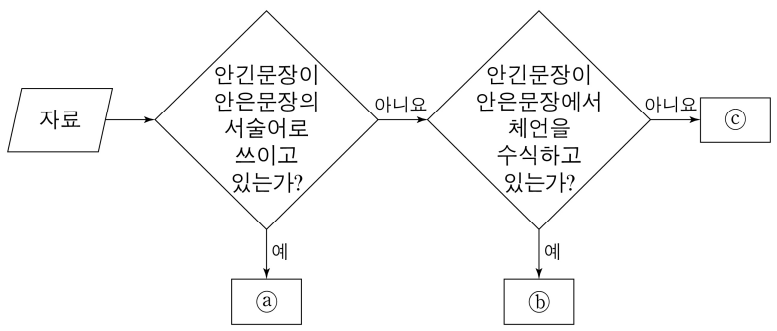
ⓐ **서다** 활용 서, 서니 …
ⓑ **끄다** 활용 꺼, 끄니 …
ⓒ **풀다** 활용 풀어, 푸니 …
ⓓ **쌓다** 활용 쌓아, 쌓으니, 쌓는 …
ⓔ **믿다** 활용 믿어, 믿으니, 믿는 …

①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②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③ ⓒ: 탈락이 나타나고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④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⑤ ⓔ: 교체가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아래 그림에 따라 [자료]의 ㉮~㉲를 분류할 때, ⓒ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찾아보자.



[자료]

㉮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다.
㉯ 마당에 아무도 모르게 꽃이 피었다.
㉰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후배 부원 둘과 선배 부원의 대화 장면)

선 배: ㉠ 학교에서 열린 회의는 잘 끝났니?

후배 1: 네. 조금 전에 끝났어요.

선 배: 수고했어. ㉡ 학교에서 우리 동아리 활동 지원 예산안에 대해 뭐라고 해?

후배 2: 지난번에 저희가 선배님과 함께 제안했던 예산안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선 배: ㉢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을 텐데.

후배 1: 그런데 학교에서는 ㉣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둘이 아니라면서, ㉤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선 배: ㉥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겠구나. 고생했어.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

후배 2: 네. 그럼 ㉦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① ㉠과 ㉡은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군.
② ㉢에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군.
③ ㉣은 뒤에 있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이군.
④ ㉥은 ㉡의 '학교'와 ㉤의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말이군.
⑤ ㉦은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기 위해 쓰는 말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신체 관련 어휘는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때 ㉢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이러한 의미 관계를 확인해 봅시다.

코[1]
-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
-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코[2]
-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다의 매듭.

① ㉠: 묽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
② ㉠: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끊어졌다.
③ ㉡: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
④ ㉡: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
⑤ ㉢: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

[40~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민신문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폐교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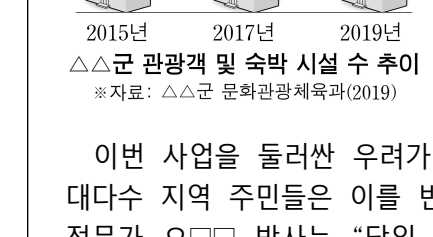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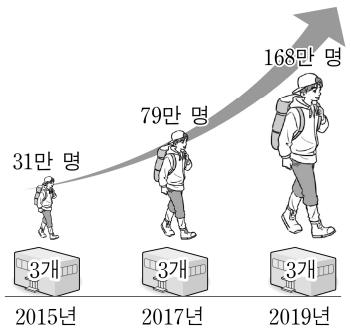
사진 : ○○초등학교 시설 전경

지난 1일 △△군은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군 특색 숙박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휴 시설을 활용해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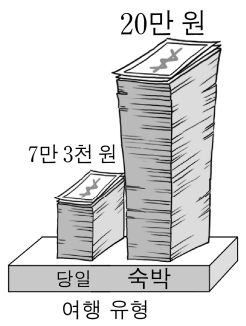
이번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시설은 ☆☆마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는 객실·식당·카페·지역 역사관 등으로 꾸미고, 운동장에는 캠핑장·물놀이장을 조성한다.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A]

해당 시설에 인접한 ☆☆마을은 2015년부터 캐릭터 동산, 어린이 열차 등 체험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지역 관광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인근에 숙박 시설이 거의 없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군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수 추이
※자료: △△군 문화관광체육과(2019)



여행 1회당 지출액(2018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이번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 전문가 오□□ 박사는 "당일 관광보다 체류형 관광에서 여행비 지출이 더 많다"며 "인근 수목원과 벚꽃 축제, 빙어 축제 등 주변 관광지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2. 06:53:01 최초 작성 / 2021.06.03. 08:21:10 수정
△△군민신문 이◇◇ 기자

좋아요(213) 싫어요(3) SNS에 공유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증가… 인근 주민들, "유휴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여행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역 명소 ①] ☆☆마을… 다섯 가지 매력이 넘치는 어린이 세상

댓글

방랑자: 가족 여행으로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나들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도 즐기고요.
↳ **방랑자**: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0. 위 화면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으니, 기사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겠군.
②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겠군.
③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겠군.
④ 기사가 문자, 사진 등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군.
⑤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군.

41.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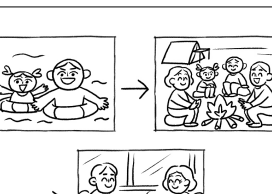
기자는 취재한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취재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그중 특정 내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한다. 따라서 기사를 분석할 때에는 기사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를 배치하는 방식, 시각 자료의 이미지 활용 방식 등 정보가 제시되는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부각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에 이어 시각 자료를 배치한 것이겠군.
②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부각하기 위해 △△군 관광객 수 추이를 제시할 때 화살표 모양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겠군.
③ 체류형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여행 유형에 따른 지출액의 차이를 이미지로 강조하여 제시한 것이겠군.
④ 체류형 관광 지출액의 증가 현상을 부각하기 위해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를 나란히 배치한 것이겠군.
⑤ 지역 경제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부각하기 위해 사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겠군.

42.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을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를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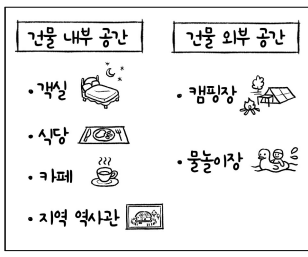
수행 과제 : 우리 지역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바탕 자료 : '○○초등학교, 특색 있는 숙박 시설로 다시 태어난다' 인터넷 기사와 댓글
영상 내용 : 새로 조성될 숙박 시설 소개
- 첫째 장면(#1) : 기사의 제목을 활용한 영상 제목으로 시작
- 둘째 장면(#2) : 시설 조성으로 달라질 전후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대비시켜 표현
- 셋째 장면(#3) :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성될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방문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
- 넷째 장면(#4) :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한 화면에 제시
- 다섯째 장면(#5) : 기사의 댓글을 참고해서 시설을 이용할 방문객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연속적으로 제시

① 영상 제작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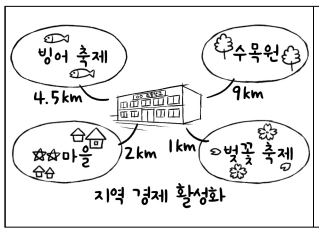
장면 스케치	장면 구상
	#1 ○○초등학교의 모습 위에 영상의 제목이 나타나도록 도입 장면을 구성.

②

#2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배경으로 텅 빈 폐교의 모습을 제시한 후,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으로 전환.

③ 

#3 숙박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건물 내·외부 공간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화하여 제시.

④ 

#4 숙박 시설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고, 관광 자원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를 자막으로 구성.

⑤
#5 가족 단위 관광객이 물놀이장, 캠핑장, 카페 등을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제시. 앞의 그림이 사라지면서 다음 그림이 나타나도록 구성.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잡지에 실린 인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면 1]
진행자 : 더워지는 요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면 2]
박 기자 :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선사해 인기가 높은 휴대용 선풍기.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 종류만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장면 3]
이△△ :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살까 하다가, 이왕이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맘에 드는 제품을 선택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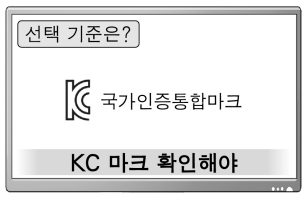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장면 4]

박 기자: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선풍기 구매 기준을 설문한 결과, 풍력, 배터리 용량과 같은 제품 성능이 1순위였습니다. 이어 디자인, 가격 등 다양한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 그런데 휴대용 선풍기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면 5]

박 기자: ㉢ 그러면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KC 마크는 안전성을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착됩니다. 간혹 광고로는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재질로 된 제품을 선택해야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면 6]

박 기자: 휴대용 선풍기 사고가 빈번한 여름철, ㉣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구성의 주체	• (가)는 수용자의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정보의 성격	• (가)는 제품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나)는 제품의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정보의 양과 질	• (가)는 제품 구매 기준이 다양함을 여러 소비자와의 인터뷰 영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에 비해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자 하는 점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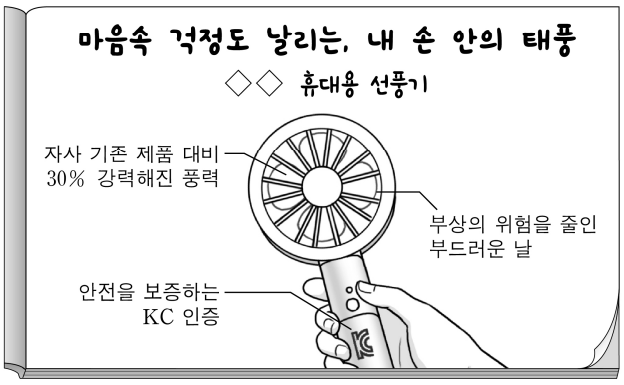
44. (가)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진행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묻고 있다.
② ㉡: 명사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뉴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있다.
③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뉴스의 중심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⑤ ㉤: 뉴스 내용에 따른 제품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45. (가)를 본 학생이 (나)를 활용하여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이미지, 문구 등을 활용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잡지에 실린 두 개의 인쇄 광고 비교하기

자료



① (나)는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하는 곡선의 형태로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쓰임새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② '자료'는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제품이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구매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③ '자료'는 (나)와 달리 제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이미지와 문구로 표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자료'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자료'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8	②	2	35	②	2	35	⑤	2
2	①	3	19	④	2	36	①	2	36	④	2
3	③	2	20	①	2	37	⑤	3	37	②	3
4	③	2	21	⑤	3	38	⑤	2	38	⑤	2
5	④	2	22	⑤	2	39	④	2	39	⑤	2
6	④	2	23	③	2	40	④	2	40	③	2
7	②	2	24	④	2	41	③	2	41	④	3
8	②	3	25	①	2	42	③	2	42	③	2
9	①	2	26	③	2	43	①	2	43	②	2
10	③	2	27	②	3	44	⑤	2	44	①	2
11	⑤	2	28	①	2	45	②	3	45	⑤	2
12	④	3	29	③	2						
13	②	2	30	①	2						
14	①	2	31	③	3						
15	②	2	32	④	2						
16	④	2	33	⑤	2						
17	②	3	34	②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절'은 발음의 단위이다. 음절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국어 발음의 특징과 여러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의 표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어서, ㉡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추카]'와 같이 ㉤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A] 그런데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초성에는 'ㅇ'이 올 수 없다. 또한 종성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종성 자리에 올 수 없는 자음이 놓여 발음할 수 없으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발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종성에는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종성 자리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게 되면 둘 중 하나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한편 음절 구조 제약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음운 변동도 있다. 예를 들어 '논일[논닐]'에서 'ㄴ'이 첨가되는 것은 음절 구조 제약과는 무관한 음운 변동이다.

3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 따라 '싫증'은 싫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예이다.
② ㉡에 해당하는 예로 '북소리'와 '국물'을 들 수 있다.
③ ㉢에 따라 끝말잇기를 할 때, '나뭇잎' 뒤에 '잎새'를 연결할 수 있다.
④ ㉣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목'과 '몫'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⑤ ㉤에 해당하는 예로 '북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을 들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기	발음
ⓐ	굳이	[구지]
ⓑ	옷만	[온만]
ⓒ	물약	[물략]
ⓓ	값도	[갑또]
ⓔ	핥는	[할른]

①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②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③ ⓒ: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④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⑤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37.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다음은 접사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파생어들이에요. ㉠~㉤에서 각각 확인되는 접사의 공통점을 설명해 보세요.

㉠ 넓이, 믿음, 크기, 지우개
㉡ 끄덕이다, 출렁대다, 반짝거리다
㉢ 울보, 낚시꾼, 멋쟁이, 장난꾸러기
㉣ 밀치다, 살리다, 입히다, 깨뜨리다
㉤ 부채질, 풋나물, 휘감다, 빼앗기다

학생: 예, 접사가 [㉮]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에서는 용언에 결합하여 명사를 만든다
② ㉡에서는 부사에 결합하여 동사를 만든다
③ ㉢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만든다
④ ㉣에서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만든다
⑤ ㉤에서는 어근과 품사가 동일한 단어를 만든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높임 표현이 홑문장에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겹문장의 안긴문장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문을 만들어 보자.

조건	예문
안긴문장에서의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된 겹문장	공원에서 산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활짝 웃으셨다.
안긴문장에서의 객체 높임의 대상이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실현된 겹문장	㉠
⋮	⋮

① 편찮으시던 어르신께서는 좀 건강해지셨나요?
② 오빠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다.
③ 나는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날짜를 아직도 기억해.
④ 누나는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할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⑤ 형은 동생이 찾아뵈려던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

㉠ 주격 조사 'ㅣ'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 목적격 조사 '올'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관형격 조사 'ㅅ'은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호격 조사 '하'는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① ㉠: 드리 즈믄 ᄀᆞᄅᆞ매 비취요미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것이]
② ㉡: 바ᄇᆞᆯ 머굻 대로 혜여 머굼과 [밥을 먹을 만큼 헤아려 먹음과]
③ ㉢: 그 나못 불휘ᄅᆞᆯ 빼혀 [그 나무의 뿌리를 빼어]
④ ㉣: ᄆᆞᆯᄀᆞᆫ ᄆᆞᆯ로 모ᄉᆞᆯ 밍ᄀᆞ노라 [맑은 물로 못을 만드노라]
⑤ ㉤: 님금하 아ᄅᆞ쇼셔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40~43] (가)는 인쇄 매체의 기사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청소년의 사회 참여, 현주소는 어디인가?

청소년 사회 참여는 청소년이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발표된 ○○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려 88.3%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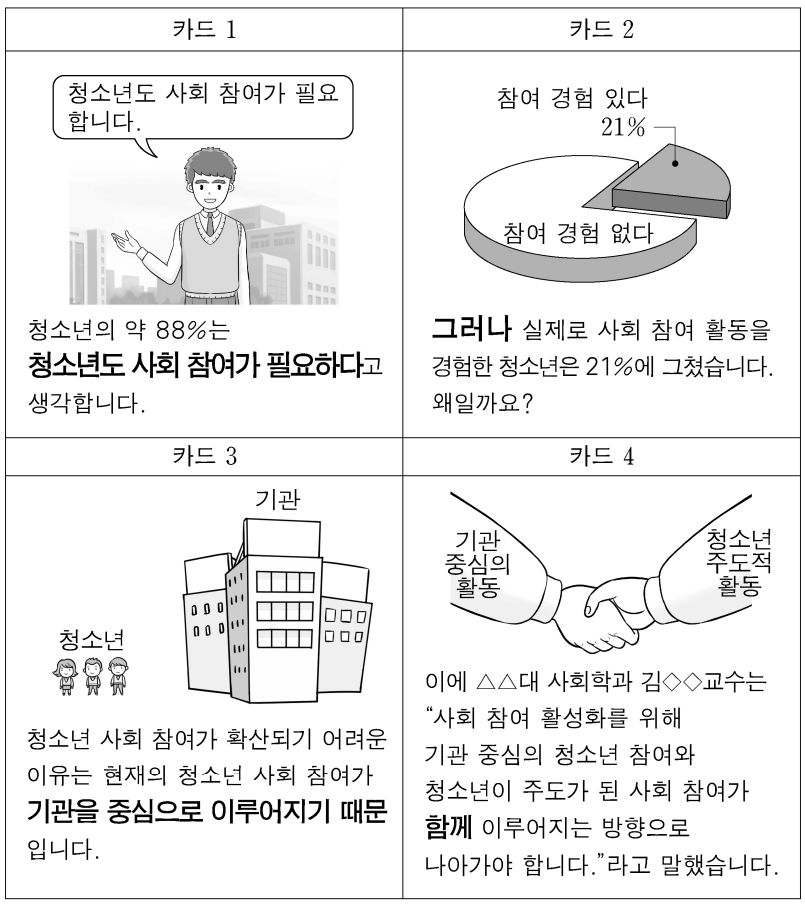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을까? ○○ 기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여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동을 확산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3학년 김 모 학생은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많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활동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 사회학과 김◇◇ 교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은 사회성을 향상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관 중심의 청소년 참여와 청소년이 주도가 된 사회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박▽▽ 기자 -

(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0. (가), (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론에 대한 왜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나)는 제시된 정보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 (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편파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가)와 (나)는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 (가)와 (나)는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1.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학생의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카드 1'에는 (가)의 보고서에 담긴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해야겠군.
② '카드 2'에는 (가)의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을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야겠군.
③ '카드 3'에는 (가)의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하는 청소년의 경향을 드러내기 위해 기관의 이미지를 더 크게 그려야겠군.
④ '카드 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제시해야겠군.
⑤ '카드 4'에는 (가)의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교수 인터뷰 내용 중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구로 제시해야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글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 연결 어미 '-여'를 사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 기회에 대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 내용의 목적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④ ㉣: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대상인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⑤ ㉤: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소감을 전달하고 있다.

43. 다음의 '카드 뉴스 보완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 '카드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카드 뉴스 보완 방향**: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나)에 카드 A, B를 추가

카드 A

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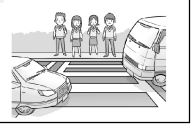
응답 내용	비율(%)
사회 참여가 어렵게 느껴져서	63
⋮	⋮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드 B

청소년 사회 참여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학교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



우리 학교 앞 신호등 설치 건의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보여 준다.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여 이유를 제시한다.
③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보여 준다.
④ (나)에서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주변의 문제를 알려 준다.
⑤ (나)에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44~45] (가)는 웹툰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진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의 회의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이 실린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 08. 01.

하진 '마음을 그려 드려요' 게시판에 다음 주에 올릴 웹툰에 대한 제작진 회의를 시작할게!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 우리 웹툰에 관심이 높아졌어! 이번 사연 내용이야.

웹툰을 챙겨 보는 독자입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이라 사연을 올려요. 친구가 시험공부를 도와 달라 했는데, 바쁘니까 알아서 하라고 짜증을 냈거든요. 서운해하는 걸 보고 후회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사이는 더 멀어졌어요. 어떻게 말할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잘 그려 주세요.

우주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난 건 어떻게 드러내지?
주혁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걸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하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
우주 좋아.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하진 그러자. 대화는 말풍선에 쓰고,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

주혁 응. 그래도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줘.

하진 그리고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줘.

우주 그래. 회의한 걸 토대로 그려 볼게! 아,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 주소 링크도 올릴게.

·····20□□. 0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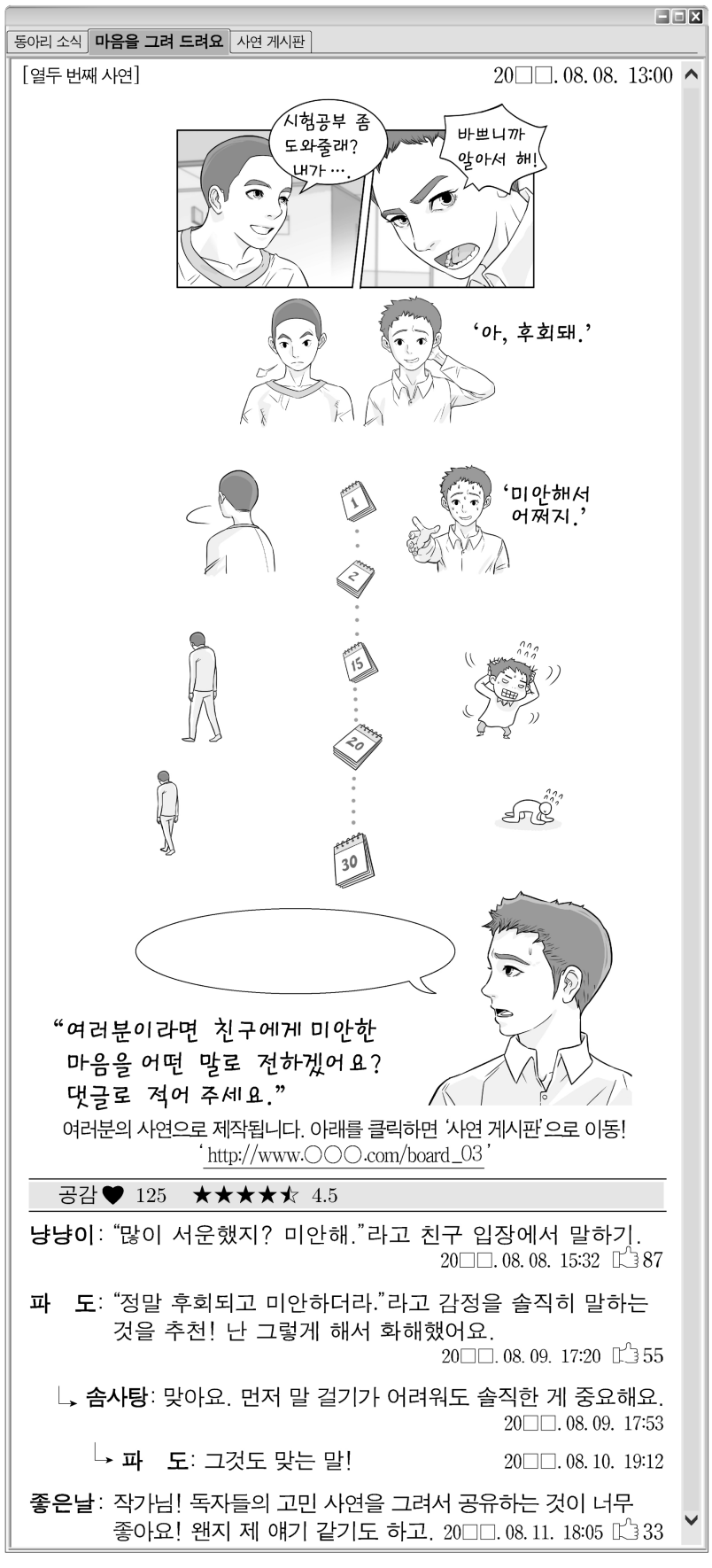
하진 댓글 봤어? 친구 입장에서 말해 보라는 의견도 있어.

우주 별점이 높은 것을 보니 독자들의 평가가 좋네.

주혁 그러게. 난 '좋은날' 님 댓글 보니 뿌듯했어. 수고했어.

+ 전송

(나)



4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는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는 웹툰 제작자가 (나)의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보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③ (나)는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나)는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나)는 웹툰의 독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45.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기 위해 장면이 제시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숫자를 세로로 배열해 날짜 변화를 표현했다.
②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여 인물의 행동 변화를 나란히 보여 주었다.
③ 멀어지는 친구 사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④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⑤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기 위해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①	2	18	④	2	35	①	2	35	④	2
2	③	2	19	④	2	36	④	2	36	②	2
3	⑤	3	20	③	2	37	②	2	37	④	3
4	②	2	21	④	3	38	③	2	38	⑤	2
5	③	2	22	①	2	39	②	2	39	①	2
6	②	2	23	②	2	40	③	2	40	②	2
7	①	2	24	⑤	2	41	⑤	3	41	③	2
8	③	3	25	①	2	42	⑤	2	42	③	2
9	⑤	2	26	②	2	43	①	2	43	⑤	3
10	⑤	2	27	④	3	44	④	2	44	⑤	2
11	④	2	28	②	2	45	④	3	45	②	2
12	⑤	2	29	④	2						
13	④	3	30	⑤	2						
14	⑤	2	31	③	3						
15	③	2	32	④	2						
16	①	3	33	②	2						
17	①	2	34	②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로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놀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두닦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연필깎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존재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 + -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 +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ᄋᆡ'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와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 너븨(넙- + -의)도 ᄀᆞ티 ᄒᆞ고 [넓이도 같이 하고]
- 노ᄑᆡ(높- + -ᄋᆡ) 다ᄉᆞᆺ 자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ᄋᆡ'로 쓰였다.

- 버ᄆᆡ(범 + 의) 뼈나 [범의 뼈나]
- 사ᄅᆞᄆᆡ(사ᄅᆞᆷ + ᄋᆡ) 무레 [사람의 무리에]
- 무ᄐᆡ(뭍 + 의) ᄃᆞ니ᄂᆞᆫ [뭍에 다니는]
- 바ᄆᆡ(밤 + ᄋᆡ) 나디 아니ᄒᆞᄂᆞ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②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릐'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ᄋᆡ'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王ㅅ 겨틔 안잿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가]
㉡ 曲江ㅅ 구븨예 ᄀᆞ마니 ᄃᆞ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 光明이 ᄇᆞᆯ기 비취여 [광명이 밝히 비치어]
㉣ 글지ᅀᅴ예 위두ᄒᆞ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 ᄯᅳ리 일후믄 [딸의 이름은]

① ㉠에서 '겨틔'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이군.
② ㉡에서 '구븨'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③ ㉢에서 'ᄇᆞᆯ기'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④ ㉣에서 '글지ᅀᅴ'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이군.
⑤ ㉤에서 'ᄯᅳ리'의 'ᄋᆡ'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이군.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상황)
민수 : 영이야, ㉠ 우리 둘이 뭐 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영이 :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 얘?
민수 : 응, 얘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솜이는 집에 있고.
영이 : 봄이랑 뭐 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 실뭉치는 ㉢ 둘 다 안 좋아해.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 우리 셋은 공을 갖고 자주 놀아. 그래서 공을 챙겨 오긴 했어.
영이 :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네가 혼자 나오고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
민수 : 그러자. 그럼 오늘 ㉥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②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 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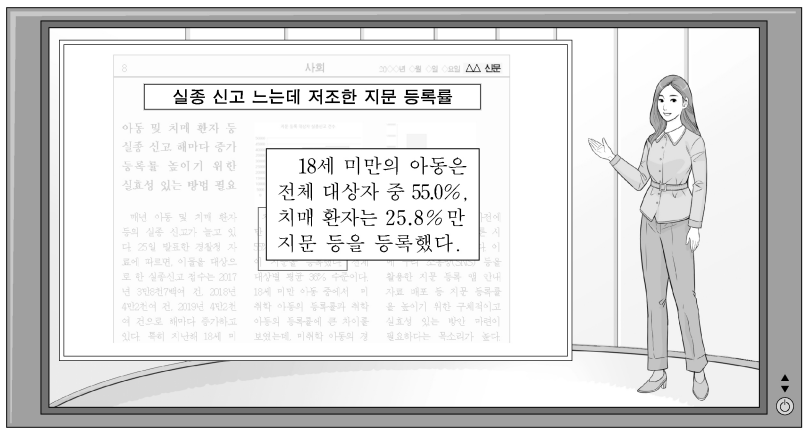
<보 기>

제34항 〔붙임 1〕 'ㅐ, ㅔ'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모음 'ㅗ, ㅜ'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놔/눠, 놨/눴'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붙임 2〕 'ㅚ'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ㅙ, ㅞ'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
제36항 'ㅣ' 뒤에 '-어'가 와서 'ㅕ'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7항 'ㅏ, ㅕ, ㅗ, ㅜ, ㅡ'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ㅐ, ㅖ, ㅚ, ㅟ, ㅢ'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갰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꽈'와 '쒔다'로 적을 수 있다.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벌이) 쏘-'에 '-이-'가 붙은 '(벌에) 쏘이-'에 '-어'가 붙으면 '쐐'로 적을 수 있다.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여'로 적을 수 있다.

[40~43] 다음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김 모 군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김 군이 돌아온 데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먼저 △△ 신문, 함께 보시죠.



진행자 : 표제가 '실종 신고 느는데 저조한 지문 등록률'인데요, 기사 내용 일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은 55.0%, 치매 환자는 25.8%만 지문 등을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등록률이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 △△ 신문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지문과 사진, 신상 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실종 시에 이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문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지문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개인 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안이니 정보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전문가 : ㉢ 사전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는 ㉣ 아동이 18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고,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래도 등록률을 높이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있어야겠네요. △△ 신문을 더 살펴볼까요?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전문가 : 지문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평균 56시간, 등록하면 평균 50여 분 정도 걸립니다.

진행자 : 시간이 많이 단축되네요. 이제 다른 기사들도 살펴볼까요? □□ 신문인데요, 간단히 보면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 신문에는 지문 등 사전등록 스마트폰 앱이 소개되어 있네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 신문

'지문 등 사전등록 앱'의 ⓐ '첫 화면'은 메뉴가 그림과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고정된 메뉴 화면을 한눈에 보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 '지문 등록' 메뉴를 누르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대상자와 보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언제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다.

ⓒ '함께 있어요' 메뉴에서는 게시판에 올라온 인적 사항과 사진들을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 '같이 찾아요' 메뉴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확인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 '보호소' 메뉴는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보호소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진행자 : ㉤필요하신 분들은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 화면으로 보시죠.

40. 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행자가 △△ 신문의 내용보다 □□ 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어떤 기사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드러내고 있군.

②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③ △△ 신문 기사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특정 부분을 방송에서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군.

④ 진행자가 △△ 신문과 ○○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군.

⑤ 전문가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 '-ㅂ니까'를 통해 시청자를 높이며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② ㉡: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 문장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 보조사 '는'을 통해 '사전등록 정보'가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④ ㉣: 연결 어미 '-면'을 통해 앞 절의 내용이 '사전등록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 보조 용언 '보다'를 통해 '앱'을 사용하는 것이 시험 삼아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42.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청자 게시판

↳ 시청자 1 제 주변에서는 많이 등록했던데요. 신문에 나온 등록률 현황은 어디에서 조사한 것인가요?

↳ 시청자 2 방송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의 필요성 위주로 이야기하고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네요.

↳ 시청자 3 미취학 아동만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도 해당되는군요. 누가 대상자인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겠어요.

↳ 시청자 4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지만 저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시청자 5 인터넷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81시간이 걸린다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① 시청자 1과 2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② 시청자 1과 4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③ 시청자 2와 5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④ 시청자 3과 4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⑤ 시청자 3과 5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43. '○○ 신문'을 바탕으로 할 때,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에서,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요약하여 비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등록한 정보를 수용자가 변형하여 배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글과 이미지로 표현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둘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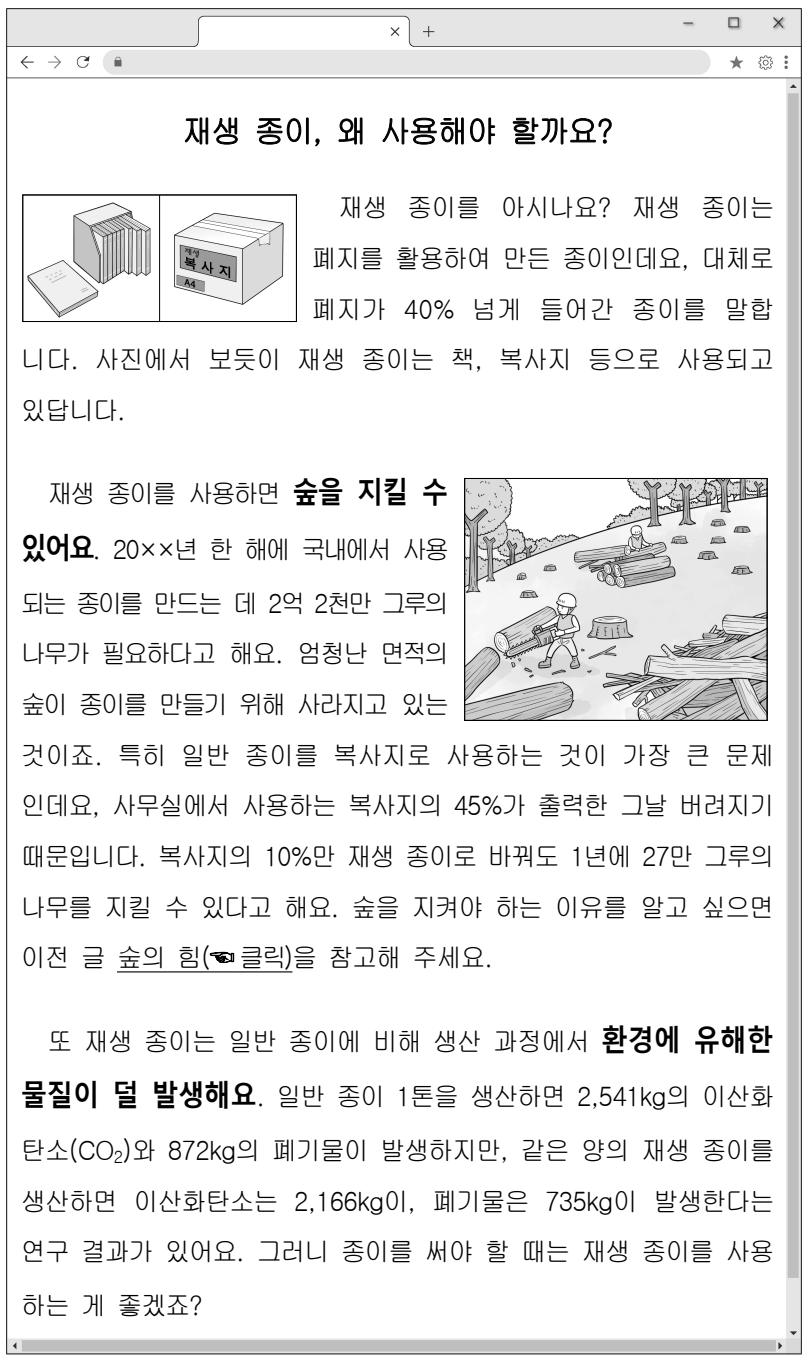
④ ⓓ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서로 다른 앱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가)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고, (나)는 발표를 위해 (가)를 참고하여 만든 스토리보드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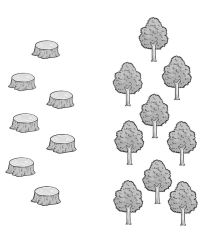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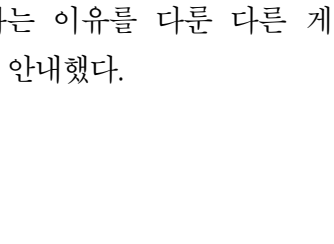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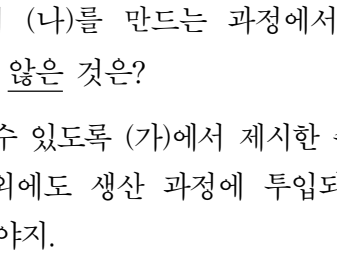
재생 종이, 왜 사용해야 할까요?

재생 종이를 아시나요?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하여 만든 종이인데요, 대체로 폐지가 40% 넘게 들어간 종이를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재생 종이는 책, 복사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재생 종이를 사용하면 **숲을 지킬 수 있어요**. 20××년 한 해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만드는 데 2억 2천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면적의 숲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반 종이를 복사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지의 45%가 출력한 그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전 글 숲의 힘(☜클릭)을 참고해 주세요.

또 재생 종이는 일반 종이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일반 종이 1톤을 생산하면 2,541kg의 이산화탄소(CO_2)와 872kg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같은 양의 재생 종이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는 2,166kg이, 폐기물은 735kg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 종이를 써야 할 때는 재생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나)

	화면 설명	화면	내레이션 및 배경 음악
#1	그림이 먼저 나오고 글이 나중에 덧붙여짐.	재생 종이란? 폐지 함량 40% 이상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해 만든 종이랍니다. 여기서 폐지는 한번 사용한 종이를 말해요. (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음악
#2	잘린 나무 밑동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옆에 나무 그림이 나타남.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숲이 사라져요. 하지만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어요. (배경 음악) 무거운 느낌에서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뀜.
#3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	 일반 종이 1톤 생산할 때	일반 종이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과 발생하는 물질의 양입니다.
#4	자막이 '재생 종이 1톤 생산할 때'로 바뀌면서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로 내려옴.	 재생 종이 1톤 생산할 때	일반 종이 대신 재생 종이를 만들면 투입 에너지와 발생 물질의 양이 약 15% 정도 줄어들어요.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생 종이의 활용 사례를 글자의 굵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했다.
② 재생 종이와 관련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소제목을 사용하여 부각했다.
③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는 숲의 면적을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 주었다.
④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일반 종이의 양을 글과 사진 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시했다.
⑤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룬 다른 게시물을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했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정보가 보강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외에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도 조사하여 추가해야지.
②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의 정의를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표현하면서 내레이션으로 보완해야지.
③ 정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가)에서 두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두 개로 구성해야지.
④ 정보 간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가)에서 제시한 일반 종이와 재생 종이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양적 차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포함해야지.
⑤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에 따른 나무 보존에 대한 내용을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나타내야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②	2	18	③	2	35	④	2	35	⑤	2
2	⑤	3	19	③	2	36	⑤	2	36	②	2
3	①	2	20	②	2	37	④	2	37	②	2
4	①	2	21	④	2	38	①	2	38	①	2
5	③	2	22	①	2	39	①	2	39	⑤	3
6	④	2	23	④	3	40	③	3	40	④	2
7	③	2	24	④	2	41	①	2	41	③	2
8	②	3	25	③	2	42	②	2	42	④	3
9	③	2	26	⑤	2	43	②	2	43	④	2
10	②	2	27	⑤	3	44	⑤	2	44	⑤	2
11	⑤	2	28	②	2	45	③	3	45	③	2
12	⑤	2	29	①	2						
13	④	3	30	③	2						
14	④	2	31	⑤	3						
15	②	2	32	④	2						
16	④	3	33	⑤	2						
17	①	2	34	③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데 사용되는 소리로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ㅅ'과 'ㅆ'을 구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 음운이 실제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뤄야 하는데 음절의 구조도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는 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이나 뒤에 각각 최대 하나의 자음을 둘 수 있지만 영어는 'spring[spriŋ]'처럼 한 음절 내에서 자음군이 형성될 수 있다.

음운은 그 자체로는 뜻이 없다. 음운이 하나 이상 모여 뜻을 가지면 의미의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고 말을 한다. 이때 ㉠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에서 음운이 다양하게 배열되고 발음이 결정되는데, 여기에 음운 규칙이 관여한다. 예컨대 국어에서는 '국물[궁물]'처럼 '파열음-비음' 순의 음운 배열이 만들어지면, 파열음은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런 음운 규칙도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영어에서는 'nickname[nikneim]'처럼 '파열음(k)-비음(n)'이 배열되어도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음운, 음절 구조, 음운 규칙은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들을 때도 작동한다. 이들은 말을 할 때는 발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재료, 구조, 방법이 되고, 말을 들을 때는 말소리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틀이 된다. 예컨대 '국'과 '밥'이 결합한 '국밥'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늘 [국빱]으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빱'이 아니라 '밥'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국빱]을 들을 때 된소리되기가 인식의 틀로 작동하여 된소리되기 이전의 음운 배열인 '국밥'으로 복원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외국어를 듣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국어의 음절 구조와 맞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바꾸고, 국어에 없는 소리를 듣는다면 국어에서 가장 가까운 음운으로 바꾸어 인식하게 된다. 영어 단어 'bus'를 우리말 음절 구조에 맞게 2음절로 바꾸고, 'b'를 'ㅂ' 또는 'ㅃ'으로 바꾸어 [버쓰]나 [뻐쓰]로 인식하는 것이 그 예이다.

35.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어 음절 구조의 특징을 고려하면 '몫[목]'의 발음에서 음운이 탈락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군.
② 국어 음운 'ㄹ'은 그 자체에는 뜻이 없지만, '갈 곳'의 'ㄹ'은 어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겠군.
③ 국어에서 '밥만 있어'의 '밥만[밤만]'을 듣고 '밤만'으로 알았다면 그 과정에서 비음화 규칙이 인식의 틀로 작동했겠군.
④ 영어의 'spring'이 국어에서 3음절 '스프링'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어 음절 구조 인식의 틀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이겠군.
⑤ 영어의 'vocal'이 국어에서 '보컬'로 인식되는 것은 영어 'v'와 가장 비슷한 국어 음운이 'ㅂ'이기 때문이겠군.

36. ㉠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앞일[암닐] ⓑ 장미꽃[장미꼳] ⓒ 넣고[너코]
ⓓ 걱정[걱쩡] ⓔ 굳이[구지]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37.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객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써 객체를 높이 대우하는 것이다.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숣-', '아뢰-' 등)를 쓰는 방법이고,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ᄭᅴ', '께')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ᄉᆞᆸ-' 등)를 쓰는 방법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다음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 다 **숣**고 부텨**ᄭᅴ** 禮數ᄒᆞ**ᄉᆞᆸ**고
[이 말 다 **아뢰**고 부처**께** 절 올리고]

<보기 2>

㉠ 나도 이제 너희 스숭니믈 보ᄉᆞᆸ고져 ᄒᆞ노니
[나도 이제 너희 스승님을 뵙고자 하니]
㉡ 須達이 舍利弗ᄭᅴ 가 [수달이 사리불께 가서]
㉢ 내 이제 世尊ᄭᅴ 숣노니 [내가 이제 세존께 아뢰니]
㉣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 모시고 갔었어?
㉤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 덴 없는지 여쭤 보셨다.

① ㉠: 어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숭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② ㉡: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舍利弗(사리불)'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③ ㉢: 조사 'ᄭᅴ'와 동사 '숣노니'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④ ㉣: 조사 '께'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⑤ ㉤: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사 '여쭤'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와 의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자립성의 유무 / 의미의 유형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 ㉡, ㉢으로 분류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우리는 비를 맞고 바람에 맞서다가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

①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에 속한다.
② '비를'과 '길을'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③ '맞고'의 '맞-'과 '맞서다가'의 '맞-'은 모두 ㉢에 속한다.
④ '바람에'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⑤ '찾아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 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국어에서는 ㉠ 동사 어근에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는 방법(접-/접히-), ㉡ 접사 '-하-'를 접사 '-받-', '-되-',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사랑하-/사랑받-), ㉢ 동사 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주-/주어지-) 등이 쓰인다. 단, '날씨가 풀리다'에서처럼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에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용법일 때는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① ㉠: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② ㉡: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③ ㉢: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졌다.
④ ㉣: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⑤ ㉤: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뉴스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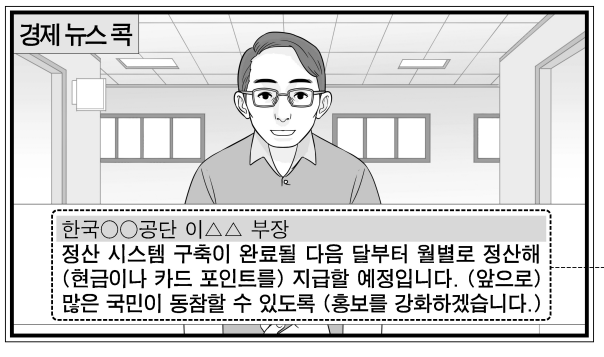
진행자: 생활 속 유용한 경제 뉴스를 알려 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콕, 김 기자. ⓐ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 주신다면서요?

기자: 네. 한국○○공단에서 실시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상 속 작은 노력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도 실시 후 석 달 만에 가입자 십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려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단 뜻이겠죠. ⓒ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받으려면 누리집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리집에 가입해서 각종 탄소 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연간 최대 칠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받으면 백 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일회 용기 대신 다회 용기를 선택하면 천 원, 세제나 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 다시 채우면 이천 원,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오천 원이 적립됩니다. ⓓ 한국○○공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관계자: 정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다음 달부터 월별로 정산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자: 기존의 탄소 포인트 제도와 더불어 이 제도가 국민들의 탄소 줄이기 생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인 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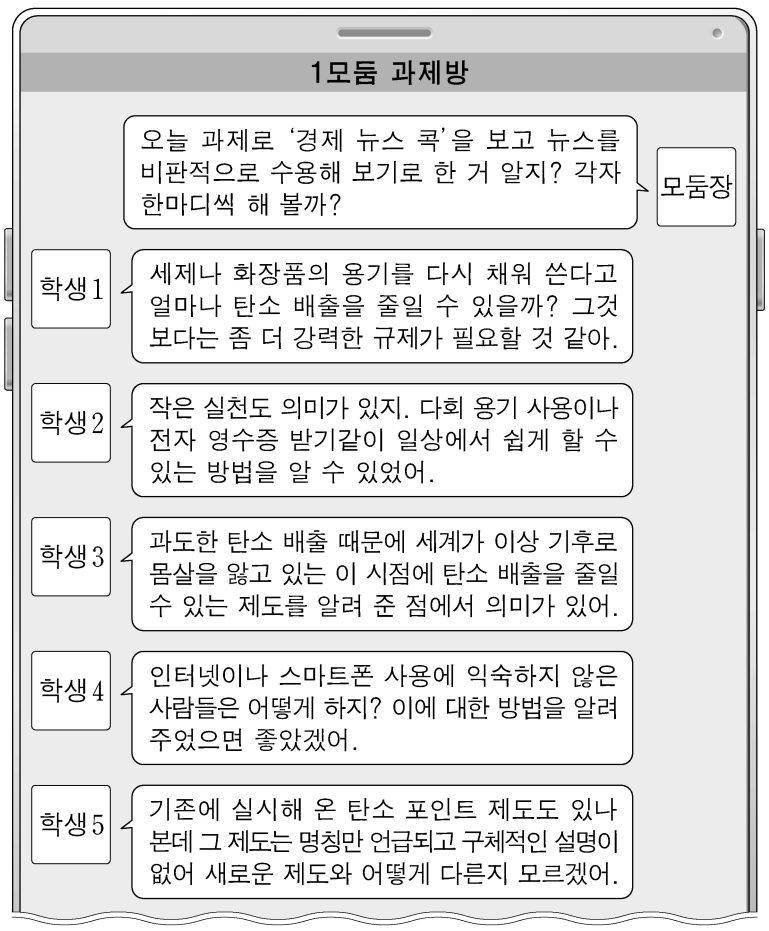
4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였다.
② ㉡은 기자의 발화 내용을 의문형으로 요약 진술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③ ㉢은 기자의 발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정보의 구체성을 강화하였다.
④ ㉣은 관계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⑤ ㉤은 이후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보조 용언 '있다'를 사용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을 표현하였다.
② ⓑ : 보조사 '도'를 사용해 제도의 장단점을 아우르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③ ⓒ : 감탄사 '자'를 사용해 시청자의 해당 누리집 가입을 재촉하려는 의도를 표현하였다.
④ ⓓ :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해 제도 시행 관련 정보를 관계자가 언급할 것이라는 추측을 표현하였다.
⑤ ⓔ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해 많은 국민이 동참해야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점이 이어지는 내용의 근거임을 표현하였다.

42. (가)를 시청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대화방의 내용이다.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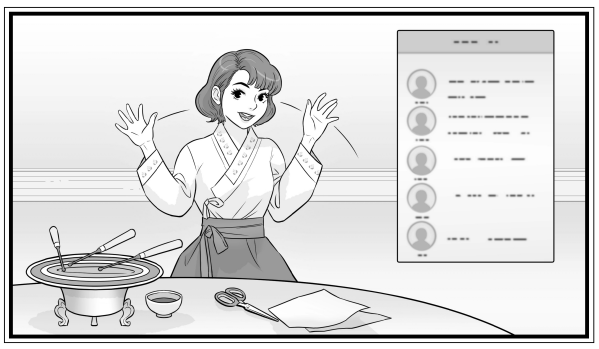
① 학생 1은 보도에서 제시한 실천 항목의 효과에 주목해 제도의 실효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② 학생 2는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 제도의 실천 용이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③ 학생 3은 제도의 시행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④ 학생 4는 누리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주목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⑤ 학생 5는 기존 제도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보도 내용의 충분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43.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 제시된 제도의 실천 항목 중 청소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군.
② (가)에 제시된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하였군.
③ (가)에 제시된 제도의 개인적 혜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돈과 저금통의 이미지를 활용하였군.
④ (가)에 제시된 가입자 증가 현황 이외에 증가 원인을 추가하여 제도 가입자가 지닌 환경 의식을 표현하였군.
⑤ (가)에 제시된 수용자보다 수용자 범위를 한정하고 생산자를 명시하여 메시지 전달의 주체와 대상을 표현하였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문화 지킴이들, 안녕!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문화 지킴이 방송의 진행자, 역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과거 궁중 연회에서 장식 용도로 사용되었던 조화인 궁중 채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빛세종: 채화? '화'는 꽃인데 '채'는 어떤 뜻이죠?

[A] 빛세종님, 좋은 질문! 채화의 '채'가 무슨 뜻인지 물으셨네요. 여기서 '채'는 비단을 뜻해요. 궁중 채화를 만드는 재료로 비단을 비롯한 옷감이 주로 쓰였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여 주며) 주로 복사꽃, 연꽃, 월계화 등을 만들었대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골라 주세요.

햇살가득: 월계화?? 월계화 만들어 주세요!

[B] 좋아요! 햇살가득님이 말씀하신 월계화로 결정!

그럼 꽃잎 마름질부터 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단을 두 겹으로 겹쳐서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잘라 줍니다. 꽃잎을 자를 때 가위는 그대로 두고 비단만 움직이며 잘라야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비단만, 움직여서. 그래야 곡선은 곱게 나오면서 가위 자국이 안 남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크기의 꽃잎을 여러 장 만들어요. 자, 다음은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힌 후, 마름질한 꽃잎에 대고 이렇게 살짝 눌러 주세요. 보셨나요? 녹인 밀랍을 찍어서 꽃잎에 입혀 주면 이렇게 부피감이 생기죠.

꼼꼬미: 방금 그거 다시 보여 주실 수 있어요?

[C] 물론이죠, 꼼꼬미님! 자, 다시 갑니다. 뜨거운 인두에 밀랍을 묻혀서 꽃잎 하나하나에, 이렇게, 누르기. 아시겠죠?

필요한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하면 정말 지루하겠죠? (미리 준비해 둔 꽃잎들을 꺼내며) 짜잔! 그래서 꽃잎을 이만큼 미리 만들어 뒀지요! 이제 작은 꽃잎부터 큰 꽃잎 순서로 겹겹이 붙여 주면 완성! 다들 박수! 참고로 궁중 채화 전시회가 다음 주에 ○○시에서 열릴 예정이니 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은맘: ○○시에 사는데, 전시회 지난주에 이미 시작했어요. 아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ㅎㅎㅎ

[D] 아, 전시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아은맘님 감사!

자,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혼자서 설명하고 시범까지 보이려니 미흡한 점이 많았겠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영롱이: 저 오늘 진짜 우울했는데ㅠ 언니 방송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오늘부터 언니 팬 할래요. 사랑해요♥

[E] 와, 영롱이님께서 제 팬이 되어 주신다니 정말 힘이 납니다. (손가락 하트를 만들며) 저도 사랑해요!

다음 시간에는 궁중 채화를 장식하는 나비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 지킴이, 역사임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44. 위 방송에 반영된 기획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접속자 이탈을 막으려면 흥미를 유지해야 하니, 꽃잎을 미리 준비해 반복적인 과정을 생략해야겠군.
② 소규모 개인 방송으로 자원에 한계가 있으니, 제작진을 출연시켜 인두로 밀랍을 묻히는 과정을 함께해야겠군.
③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편집을 할 수 없으니, 마름질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군.
④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매체이니, 방송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고정 시청자 등록을 부탁해야겠군.
⑤ 방송 도중 접속한 사람은 이전 내용을 볼 수 없으니, 마무리 인사 전에 채화 만드는 과정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해야겠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A]~[E]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은 영상과 채팅의 결합을 통해 방송 내용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수용자는 방송 중 채팅을 통해 이어질 방송의 내용과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미 제시된 방송의 내용을 추가, 보충, 정정하게 하는 등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생산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① [A] : '빛세종'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B] : '햇살가득'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힘으로써 진행자가 생산할 내용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③ [C] : '꼼꼬미'는 제시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 [D] : '아은맘'은 제시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오류를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
⑤ [E] : '영롱이'는 자신의 감정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①	2	18	④	2	35	①	2	35	③	2
2	⑤	2	19	③	2	36	④	3	36	②	2
3	④	3	20	④	2	37	③	2	37	①	2
4	①	2	21	⑤	3	38	②	2	38	⑤	2
5	③	2	22	⑤	2	39	⑤	2	39	③	3
6	④	2	23	②	2	40	②	3	40	②	2
7	①	2	24	②	2	41	④	2	41	⑤	2
8	②	3	25	①	2	42	⑤	2	42	④	3
9	③	2	26	①	2	43	③	2	43	④	2
10	①	2	27	②	3	44	⑤	2	44	①	2
11	②	2	28	③	2	45	③	2	45	③	2
12	④	2	29	①	2						
13	③	3	30	③	2						
14	①	2	31	⑤	3						
15	⑤	2	32	②	2						
16	④	3	33	④	2						
17	②	2	34	①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명사가 동사나 형용사와 차례대로 결합하여 '손잡다'와 같은 합성 동사나 '쓸모없다'와 같은 합성 형용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합성 동사와 합성 형용사를 묶어 합성 용언이라고 한다. 합성 용언은 크게 구성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쓸 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손잡다'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자랑삼다'는 명사 '자랑'과 동사 '삼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요소인 '쓸모'와 '없다'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주름잡다'는 구성 요소인 '주름'과 '잡다'의 의미를 벗어나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주름잡다'의 이와 같은 의미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롭게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나는 바지에 주름 잡는 일이 너무 어렵다.'의 '주름 잡는'의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합성 용언 중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불타다'가 '나는 지금 학구열에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의욕이나 정열 따위가 끓어오르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학구열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타다'가 '장작이 지금 불타고 있다.'에서와 같이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할 때 더 분명해진다.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시장에서 책가방을 값싸게 샀다.'의 '값싸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② '나는 눈부신 태양 아래에 서 있었다.'의 '눈부신'은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③ '누나는 나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았다.'의 '뒤돌아'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④ '언니는 밤새워 숙제를 다 마무리했다.'의 '밤새워'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⑤ '큰형은 앞서서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의 '앞서서'는 구성적 측면에서 ㉢과 동일한 유형의 합성 용언이겠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 목말라 있다.
○ 그는 이 과자를 간식으로 ⓑ 점찍어 두었다.
○ 그녀는 요즘 야식과 ⓒ 담쌓고 지내고 있다.
○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직 ⓓ 녹슬지 않았다.
○ 그녀는 최신 이론에 마침내 ⓔ 눈뜨게 됐다.

①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②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④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⑤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머무시는 동안 ⓐ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 샜을 가능성이 높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 가셨겠구나.
○ 항구에 ⓔ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①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②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③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④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⑤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부정에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이나 '-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안'이나 '-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안'이나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더라도 '나는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었다.'에서와 같이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① ㉠: 옛날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 주문한 옷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② ㉠: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
㉡: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③ ㉠: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④ ㉠: 내 얘기에 고모는 놀라지 않았다.
㉡: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⑤ ㉠: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 아주 오래간만에 비가 안 온다.

39.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학생: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조항에서 'ㄱ, ㄷ, ㅂ' 옆의 괄호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 **제18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ㄼ, ㄿ, ㅄ)'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받침이 'ㄱ, ㄷ, ㅂ'이 아니더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ㄱ, ㄷ,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학생: 아, 그렇다면 [A]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① '밖만[방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② '폭넓다[퐁널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③ '값만[감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④ '겉늙다[건늑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⑤ '호박잎[호방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40~42] (가)는 학습 활동이고, (나)는 학생이 (가)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한 전자책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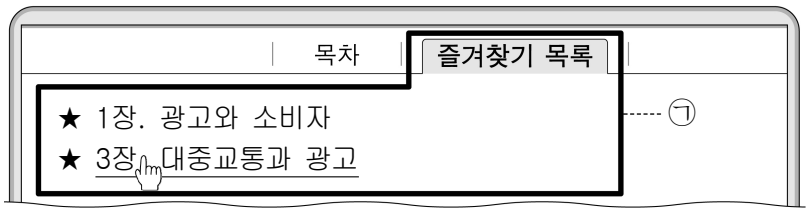
(가)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바탕으로, ○○구청 관계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광고 방안을 발표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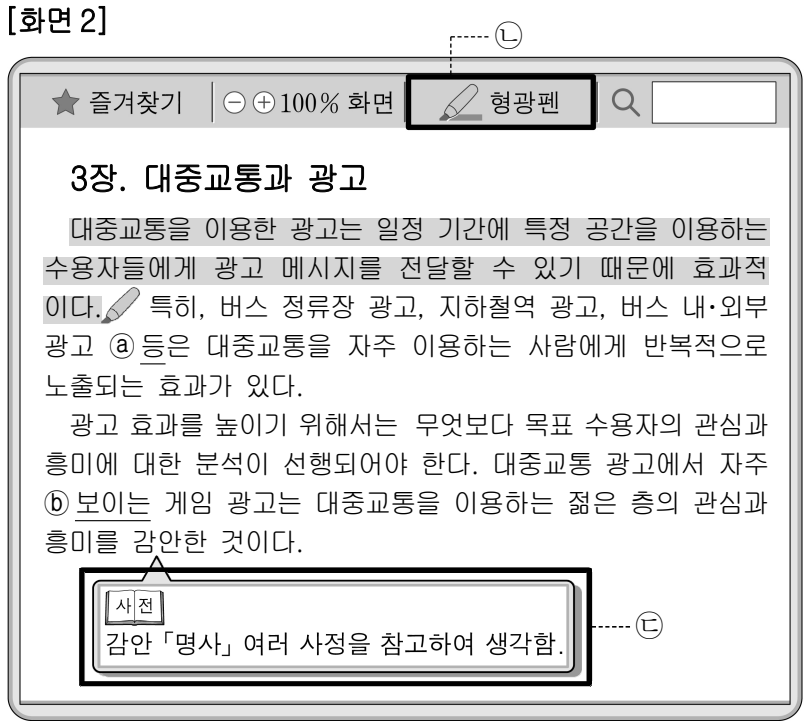
> ○○구청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을 기획하면서, ○○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중교통 광고의 효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를 활용하여 광고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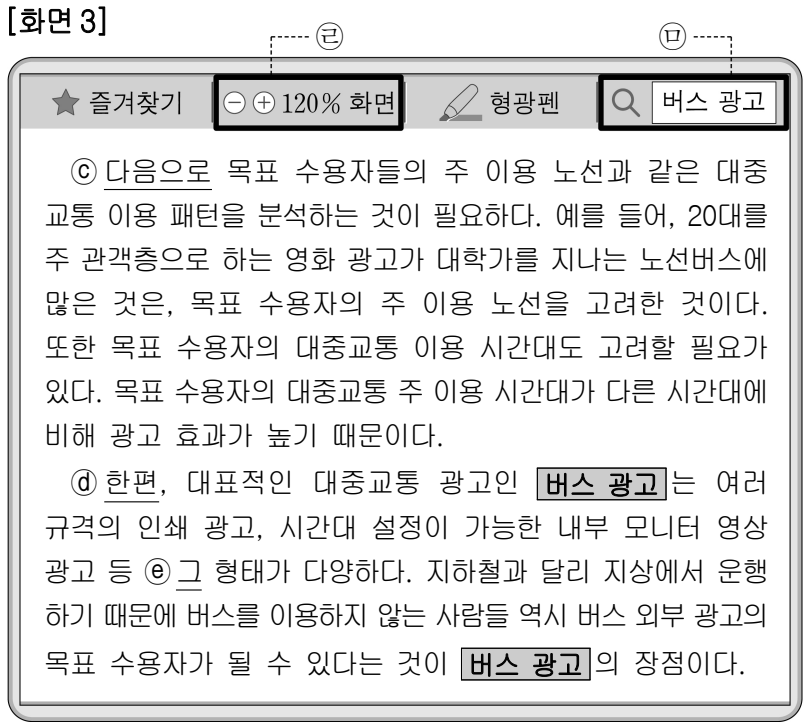
[화면 1]



[화면 2]



[화면 3]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0. <보기>는 (나)의 전자책을 활용한 학생의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전자책은 중요한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종이 책과 비슷했어. 하지만 다시 봐야 할 내용을 선택해 별도의 목록으로 만들거나 어구를 검색해 원하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종이 책과 달랐어. 책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본 결과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내용을 빠르게 이해했어. 또 화면 배율을 조정해 글자 크기를 조절하니 읽기에 편했어.

① ㉠에 1, 3장이 포함된 것은 학생이 해당 장의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② ㉡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가 효과적인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 강조 표시가 된 것은 학생이 해당 문장을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③ ㉢의 '감안'에 대한 사전 찾기 결과는 [화면 2]에서 본문과 함께 제시되어 학생의 글 읽기에 도움을 주었군.
④ ㉣을 통해 [화면 3]의 글자 크기가 [화면 2]보다 커진 것은 학생의 읽기 편의성을 높여 주었군.
⑤ ㉤의 결과가 [화면 3]에 표시된 것은 학생이 '버스 광고'를 쉽게 찾아 버스 광고의 제작 기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군.

41. 다음은 학생이 (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바탕으로 작성한 메모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메모 1 :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광고에서 강조하면 효과적이겠다.
메모 2 :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에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메모 3 :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고, 도보 통학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면 효과적이겠다.

① '메모 1'에서, 광고에서 부각할 내용을 선정한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요소를 고려한 것이겠군.
②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③ '메모 2'에서, 버스 노선 중에서 특정 노선을 선택한 것은 (나)에 제시된 영화 광고의 예처럼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고려한 것이겠군.
④ '메모 3'에서, 광고 게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는 광고 형태를 제안하려는 것은 (나)에 제시된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겠군.
⑤ '메모 3'에서, 버스 옆면과 뒷면 광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나)에 제시된 버스 외부 광고의 장점을 고려한 것이겠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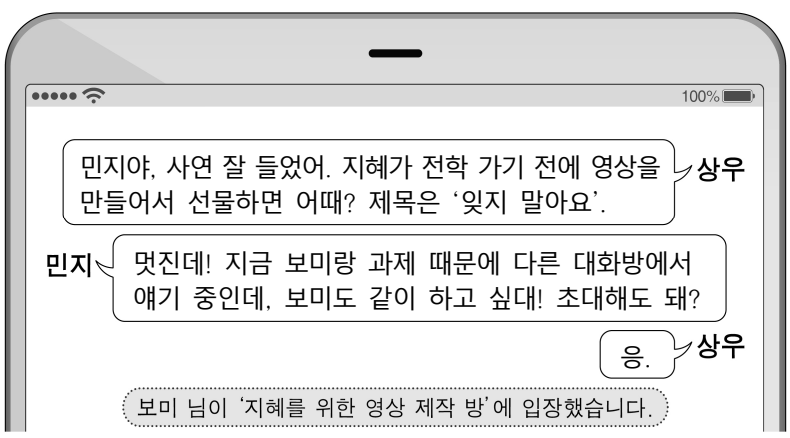
① ⓐ: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여럿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② ⓑ: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③ ⓒ: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더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④ ⓓ: 목표 수용자 분석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⑤ ⓔ: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3~45] (가)는 교내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들은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신저로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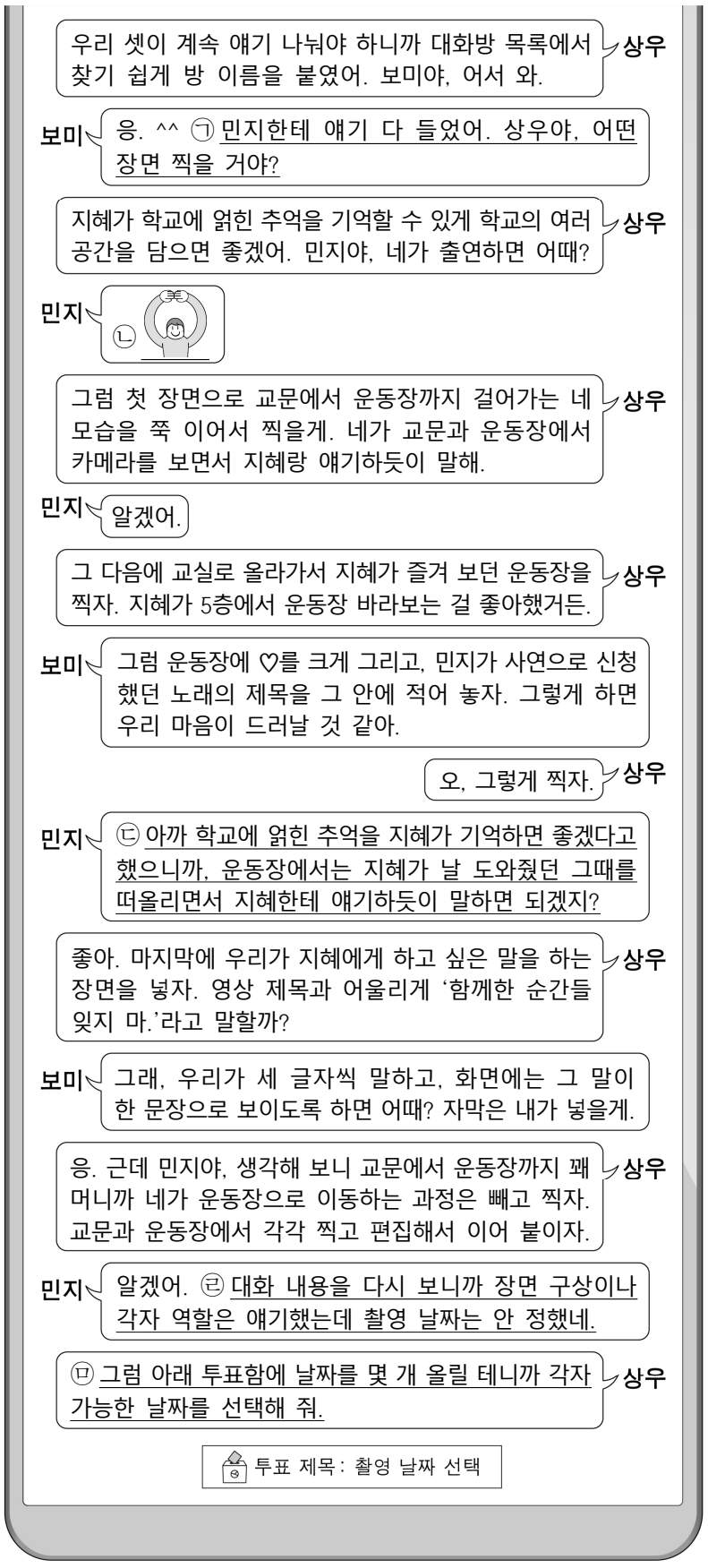
진행자 : 방송을 듣고 계신 ○○고 여러분, 매주 수요일 마지막 순서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어제까지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잔잔한 배경 음악) "3학년 1반 이민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운동장에서 다쳤을 때 우리 반 지혜가 응급 처치를 해 줬어요.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곧 전학을 가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의 노래 <다시 만날 우리들>을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나)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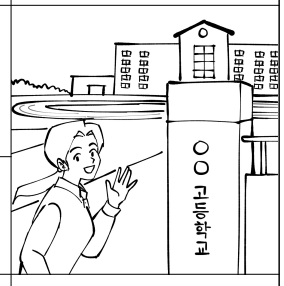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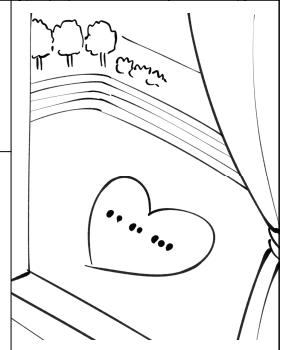
43. (가), (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고 있다.

44.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공유된 맥락을 기반으로 '상우'에게 질문하고 있다.
② ㉡: 동의의 뜻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상우'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
③ ㉢: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영상 제작에 관한 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④ ㉣: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하여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⑤ ㉤: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 날짜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①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 지혜가 여러 공간에 얽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어.	
② 학교 공간을 촬영할 때, 민지가 지혜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드러내야겠어.	
③ 지혜가 바라보던 운동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교실에서 촬영해야겠어.	
④ 운동장에 그린 하트 모양의 그림에 '다시 만날 우리들'이라는 글자가 적힌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겠어.	
⑤ 우리가 다 같이 등장해서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나눠서 말한 내용이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게 자막을 삽입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①	2	18	④	2	35	④	2	35	③	2
2	④	3	19	②	2	36	④	2	36	③	2
3	①	2	20	③	2	37	③	2	37	④	3
4	③	2	21	④	3	38	①	2	38	⑤	2
5	①	2	22	①	2	39	②	2	39	④	2
6	⑤	2	23	④	3	40	②	3	40	⑤	2
7	⑤	2	24	⑤	2	41	⑤	2	41	②	2
8	③	3	25	⑤	2	42	②	2	42	②	2
9	①	2	26	④	2	43	①	2	43	①	2
10	②	2	27	③	2	44	⑤	2	44	③	2
11	④	2	28	⑤	2	45	②	3	45	①	3
12	②	2	29	④	2						
13	④	3	30	③	2						
14	②	2	31	③	3						
15	⑤	2	32	④	2						
16	⑤	3	33	③	2						
17	①	2	34	②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짝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합성 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 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찌-', '-ㅁ'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 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 합성 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 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 수 있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 명사의 두 어근에도 ⓐ 중심적 의미나 ⓑ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 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 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합성 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 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공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 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 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다'는 합성 명사의 후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35. ㉠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동생은 오늘 ㉮ 새우볶음을 많이 먹었다.
○ 우리는 결코 ㉯ 집안싸움을 하지 않겠다.
○ 요즘 농촌은 ㉰ 논밭갈이에 여념이 없다.
○ 우리 마을은 ㉱ 탈춤놀이가 참 유명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36. 윗글의 ⓐ, ⓑ와 연관 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 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료>

합성 명사	뜻
칼잠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머리글	책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
일벌레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입꼬리	입의 양쪽 구석
꼬마전구	조그마한 전구

① '칼잠'과 '구름바다'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② '머리글'과 '물벼락'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③ '일벌레'와 '벼락공부'는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④ '입꼬리'와 '도끼눈'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⑤ '꼬마전구'와 '꿀잠'은 ⓑ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은 중세 국어의 문자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료 에서 ⓐ~ⓔ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모두 골라 묶어 보자.

ⓐ 乃냉終즁ㄱ소리ᄂᆞᆫ 다시 첫소리를 ᄡᅳᄂᆞ니라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초성 글자를 사용한다]
ⓑ ㅇ를 입시울쏘리 아래 니ᅀᅥ 쓰면 입시울 가ᄇᆡ야ᄫᆞᆫ 소리 ᄃᆞ외ᄂᆞ니라
[ㅇ을 순음 글자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 글자가 된다]
ⓒ 첫소리를 어울워 ᄲᅡᆰ디면 ᄀᆞᆯ바 쓰라 乃냉終즁ㄱ소리도 ᄒᆞᆫ가지라
[초성 글자를 합하여 사용하려면 옆으로 나란히 쓰라 종성 글자도 마찬가지이다]
ⓓ ㆍ와 ㅡ와 ㅗ와 ㅜ와 ㅛ와 ㅠ와란 첫소리 아래 브텨 쓰고
['ㆍ, ㅡ, ㅗ, ㅜ, ㅛ, ㅠ'는 초성 글자 아래에 붙여 쓰고]
ⓔ ㅣ와 ㅏ와 ㅓ와 ㅑ와 ㅕ와란 올ᄒᆞᆫ녀긔 브텨 쓰라
['ㅣ, ㅏ, ㅓ, ㅑ, ㅕ'는 초성 글자 오른쪽에 붙여 쓰라]

자료 ᄢᅵ니, ᄇᆞᆮ, 사ᄇᆡ, ᄉᆞᄀᆞᄅᆞᆯ, ᄲᅡᆨ, ᄒᆞᆱ

① ⓐ: ᄇᆞᆮ, ᄲᅡᆨ, ᄒᆞᆱ ② ⓑ: 사ᄇᆡ, ᄉᆞᄀᆞᄅᆞᆯ
③ ⓒ: ᄢᅵ니, ᄲᅡᆨ, ᄒᆞᆱ ④ ⓓ: ᄇᆞᆮ, ᄉᆞᄀᆞᄅᆞᆯ, ᄒᆞᆱ
⑤ ⓔ: ᄢᅵ니, 사ᄇᆡ, ᄲᅡᆨ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다음은 된소리되기와 관련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 오늘은 표준 발음을 대상으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를 알아봅시다. '(신발을) 신고[신:꼬]'처럼 용언의 활용에서는 마지막 소리가 'ㄴ, ㅁ'인 어간 뒤에 처음 소리가 'ㄱ, ㄷ, ㅅ, ㅈ'인 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의 처음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요.

학생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국어에서 'ㄱ, ㄷ, ㅅ, ㅈ'이 'ㄴ, ㅁ' 뒤에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뀌나요?

선생님 :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표준 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 어미끼리 결합하거나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먼지[먼지]'처럼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ㅁ' 뒤에 'ㄱ, ㄷ, ㅅ, ㅈ'이 있는 경우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음 ⓐ~ⓔ의 밑줄 친 말에서 'ㄴ'이나 'ㅁ'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 피로를 푼다[푼다]　　ⓑ 더운 여름도[여름도]
ⓒ 대문을 잠가[잠가]　　ⓓ 품에 안겨라[안겨라]
ⓔ 학교가 큰지[큰지]

학생 : 그 이유는 [A] 때문입니다.

선생님 : 네, 맞아요.

① ⓐ의 'ㄴ'과 'ㄷ'이 모두 어미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② ⓑ의 'ㅁ'과 'ㄷ'이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③ ⓒ의 'ㅁ'과 'ㄱ'이 모두 하나의 형태소 안에 속해 있는 소리이기
④ ⓓ의 'ㄴ'과 'ㄱ'이 어미끼리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이기
⑤ ⓔ의 'ㄴ'과 'ㅈ'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서 이어진 소리가 아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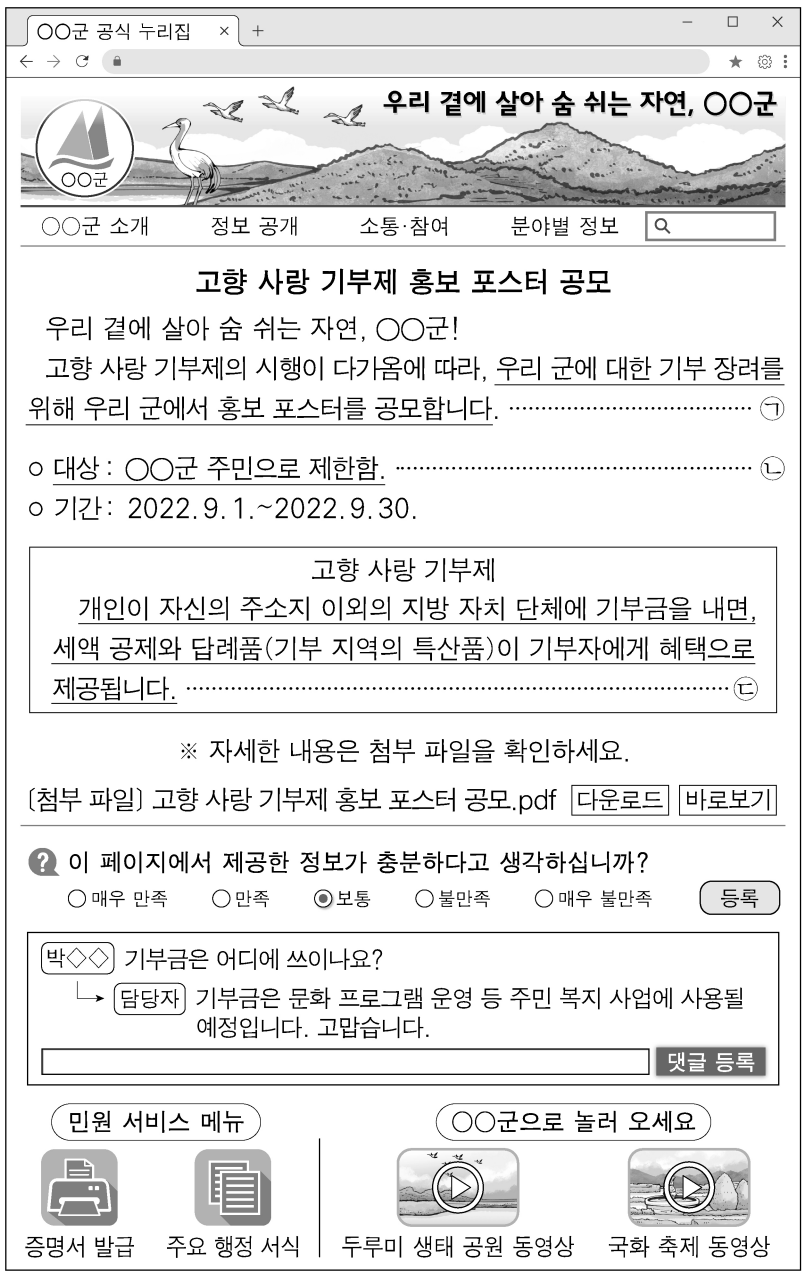
3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 이 식당은 우리 가족이 점심을 먹은 식당이 아니다.
㉣ 그녀는 아름다운 관광지를 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① ㉠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② ㉠과 ㉡에는 모두, 주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③ ㉠과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④ ㉢에는 보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부사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⑤ ㉢과 ㉣에는 모두,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있다.

[40~43] (가)는 ○○군 공식 누리집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들의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해윤 :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하자. 내 말 잘 들리지?

설아 : 해윤아,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이크 좀 확인해 줄래?

해윤 : 어? 내 마이크 음량을 키워 볼게. 이제 잘 들리지?

설아 : 응. 근데 오늘 나연이는 참석 못 한대. 내가 회의를 녹화해서 나중에 보내 주려고 해. 동의하지?

해윤, 종서, 수영 : 응, 그래.

채팅	설아 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해윤 : 오늘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기로 했잖아. 우리 ○○군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 봤니?

종서 : 미안해. 나는 아직 못 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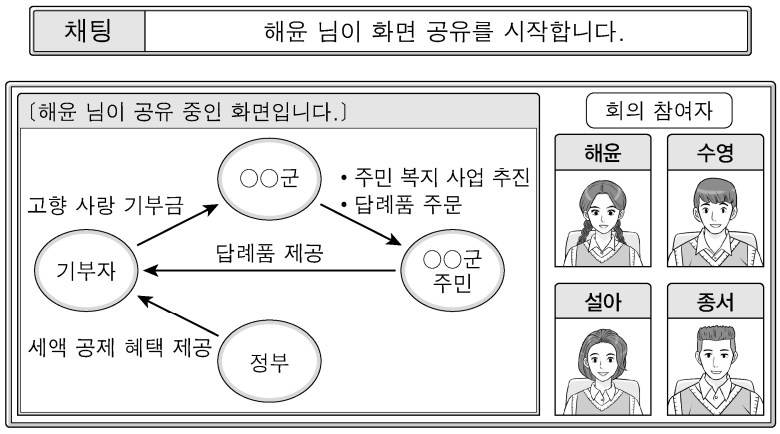
수영 : 음, 직접 말로 설명하려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첨부 파일 보내 줄게. 파일에 자세히 설명돼 있으니까 읽으면서 들어.

채팅	수영 님이 종서 님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파일명: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 공모.pdf

종서 : 고마워.

해윤 : 그럼 이어서 얘기할게. 내가 만들어 온 그래픽 자료를 보면서 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야기하자.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해윤 : 정부, 기부자, ○○군, ○○군 주민으로 구분해서 고향 사랑 기부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나타낸 거야.

수영 : 좋은데, 포스터에 정부까지 그려 넣으면 너무 복잡할 거 같으니까, 나머지 셋으로만 구성하자.

설아 : 그리고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기부자가 부각되도록 기부자를 가운데에 두자.

수영 : 화살표를 곡선으로 해서 하트 모양으로 하면 기부자가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걸 포스터에 드러낼 수 있을 거 같아.

해윤 : 좋아. 그런데 포스터에 정부가 없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은 어떻게 나타내지?

종서 : 음, 고민해 보자. 그리고 첨부 파일을 읽어 보니 기부자의 현재 주소지가 아니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대. 우리 지역에 기부하게 하려면 답례품을 알려 줘야 할 거 같은데?

해윤 : 답례품 정보가 있는 누리집 주소 불러 줄게. 디, 에이, 엠…. 아, 그냥 채팅 창에 링크로 올리는 게 편하겠다.

채팅	해윤 https://damnyepum.□□□□.go.kr 종서 고마워.

종서 : 찾아보니 인삼이 우리 지역 답례품이네. 이걸 그려 넣자.

해윤 : 그리고 우리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니까,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나타내 보자.

수영 : 응, 좋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세액 공제는 두루미가 말을 전해 주듯 설명하면 되겠다.

해윤 :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만들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자.

40.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지역의 관광 명소와 축제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군.

② 누리집 상단에 홍보 문구와 풍경 그림을 제시하여 지역이 부각하고자 하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군.

③ 민원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여 증명서나 행정 서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군.

④ 지역에 대한 만족도 표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군.

⑤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누리집 이용자가 작성한 질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포스터를 공모하는 주체가 단체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군 기부에 동참한 기부자를 공손하게 높이고 있다.

③ ㉡은 명사형 어미 '-ㅁ'을 사용하여 포스터에서 제외해야 할 내용 항목을 간결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은 연결 어미 '-면'을 사용하여 기부 대상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은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42.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설아'는 특정 참여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참여자의 음량을 조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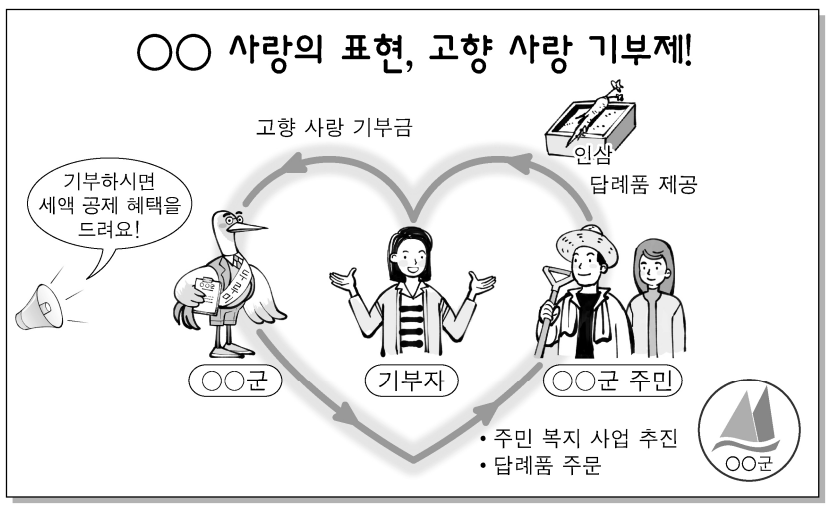
② '설아'는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나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였다.

③ '수영'은 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의 중에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종서'에게 전송하였다.

④ '해윤'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래픽 자료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⑤ '해윤'은 음성 언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43. (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할 때, 포스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설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부자를 중심에 배치했다.

②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부 행위에 담긴 긍정적인 마음을 연상시키는 기호의 모양을 사용했다.

③ '종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에 기부했을 때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을 그려 넣었다.

④ '해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이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군을 두루미 캐릭터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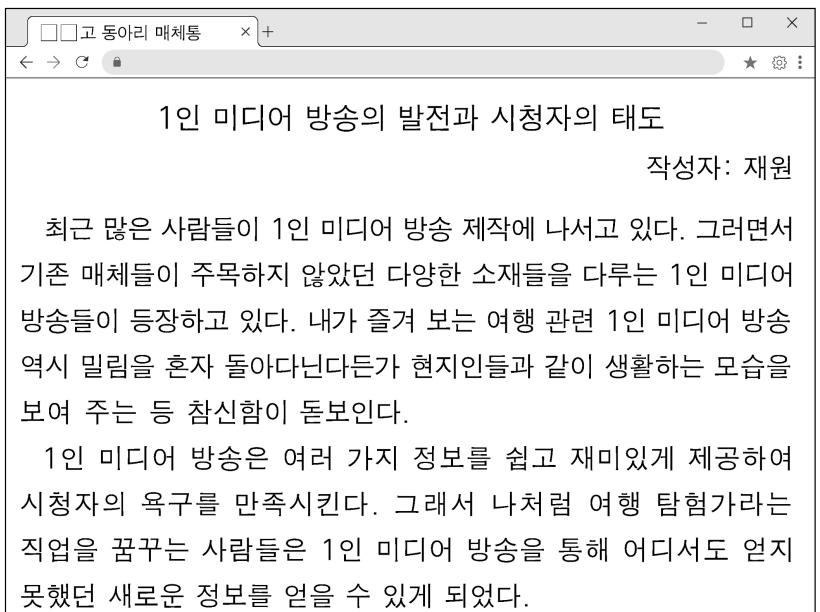
⑤ '수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내용을 직접 알려 주듯이 말풍선을 제시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다음은 온라인 카페 화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화면 1] ([게시판]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을 클릭한 화면)

[화면 2] ([화면 1]에서 17번 게시물을 클릭한 화면)



44. <보기>를 바탕으로 [화면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체통' 동아리 카페 활동 규칙

개설 목적: '매체통' 동아리원들이 다양한 매체 자료 비평 활동을 통해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규칙 1.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매체 자료 비평을 위한 글만 작성하고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올린다.
3.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을 보니,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동아리 성격이 드러나도록 카페의 활동 주체와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군.
②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 유형에 따라 게시판을 항목별로 나누어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군.
③ ㉢을 보니, '규칙 1'을 고려하여 동아리 활동 계획을 상기할 수 있도록 비평 활동 결과의 제출 기한을 제시하였군.
④ ㉤을 보니, '규칙 2'를 고려하여 사건 보도 기사를 작성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 링크를 제시하였군.
⑤ ㉣을 보니, '규칙 3'을 고려하여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이 동아리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하였군.

45. [화면 2]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혜원'은 증명되지 않은 정보를 접했던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재원'과 '민수'는 모두, 1인 미디어 방송의 상업적 의도를 알아차린 경험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재원'은 '영진'과 달리, 자신이 본 여행 관련 1인 미디어 방송을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의 소재가 다양하다고 판단하였다.
⑤ '영진'은 '지수'와 달리, 고정 시청자 수가 늘지 않는 1인 미디어 방송 사례를 근거로 1인 미디어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④	2	18	④	2	35	①	2	35	②	2
2	⑤	3	19	③	2	36	⑤	2	36	④	2
3	①	2	20	③	2	37	③	2	37	①	2
4	④	2	21	⑤	3	38	④	2	38	④	3
5	⑤	2	22	①	2	39	④	2	39	①	2
6	③	2	23	⑤	2	40	③	2	40	②	2
7	②	2	24	③	3	41	②	3	41	①	2
8	⑤	3	25	③	2	42	④	2	42	③	2
9	②	2	26	④	2	43	⑤	2	43	⑤	3
10	④	2	27	①	2	44	②	2	44	④	2
11	⑤	2	28	⑤	2	45	①	3	45	③	2
12	②	3	29	①	2						
13	⑤	2	30	②	3						
14	③	2	31	①	2						
15	④	2	32	④	2						
16	④	2	33	②	2						
17	①	3	34	③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나의 살던 고향'은 '내가 살던 고향'과 같은 의미로 '나'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살던'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특이한 구조이다.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주격 조사처럼 해석되는 경우가 중세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聖人의(聖人+의) ᄀᆞᄅᆞ치샨 法[성인의 가르치신 법]'의 경우, '聖人'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고 있지만 후행하는 용언인 'ᄀᆞᄅᆞ치샨'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는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결합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ᄋᆡ/의'가, 무정 체언 또는 존칭의 유정 체언에는 'ㅅ'이 결합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ㅅ'이 쓰일 자리에 '의'가 쓰였기 때문이다.

중세 국어 격조사 결합 원칙의 또 다른 예외는 부사격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을 기준으로, 모음 조화에 따라 '나죵애'(나죵+애), '므레'(믈+에)에서처럼 '애/에'가 쓰인다. 단, 끝음절이 모음 'ᄋᆡ'나 반모음 'ㅣ'로 끝날 때에는 ㉠'뉘예'(뉘+예)에서처럼 '예'가 쓰였다. 그런데 '애/에/예'가 쓰일 위치에 부사격 조사인 'ᄋᆡ/의'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봄', '나조ㅎ'[저녁], ㉡'우ㅎ'[위], '밑' 등의 일부 특수한 체언들에서 확인된다. 가령, '나조ㅎ'에는 'ᄋᆡ'가 결합하여 ㉢'나조히'(나조ㅎ+ᄋᆡ)로, '밑'에는 '의'가 결합하여 '미틔'(밑+의)로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 가운데 관형격 조사가 그 구성 성분으로 분석되는 독특한 경우도 있다. 가령, 'ᄋᆡ그에'는 관형격 조사 'ᄋᆡ'에 '그에'가 결합된 형태이고 'ㅅ긔' 역시 관형격 조사 'ㅅ'에 '긔'가 결합된 부사격 조사다. 이들은 ㉣'ᄂᆞᄆᆡ그에'(놈+ᄋᆡ그에)나 '어마님긔'(어마님+ㅅ긔)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평칭의 유정 명사 '놈'에는 'ᄋᆡ그에'가, 존칭의 유정 명사 '어마님'에는 'ㅅ긔'가 쓰인다. 중세 국어의 'ᄋᆡ그에'와 'ㅅ긔'는 각각 현대 국어의 '에게'와 ㉤'께'로 이어진다.

35.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부사격 조사 '예'와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끝음절에서 반모음 'ㅣ'가 확인된다.
② ㉡에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면 '우희'가 된다.
③ ㉢은 현대 국어로 '저녁의'로 해석되어 관형격 조사의 쓰임이 확인된다.
④ ㉣의 'ᄋᆡ그에'에서는 관형격 조사 'ᄋᆡ'가 분석된다.
⑤ ㉤이 현대 국어에서 존칭 체언에 사용되는 것은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 'ㅅ'과 관련된다.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자 료>

ⓐ 수플(수플+ㅅ) 神靈이 길헤 나아
〔현대어 풀이 : 수풀의 신령이 길에 나와〕
ⓑ ᄂᆞᄆᆡ(놈+ᄋᆡ) 말 드러ᅀᅡ 알 씨라
〔현대어 풀이 : 남의 말 들어야 아는 것이다〕
ⓒ 世界ㅅ(世界+ㅅ) 일올 보샤
〔현대어 풀이 : 세계의 일을 보시어〕
ⓓ 이 사ᄅᆞᄆᆡ(사ᄅᆞᆷ+ᄋᆡ) 잇ᄂᆞᆫ 方面을
〔현대어 풀이 : 이 사람의 있는 방면을〕
ⓔ 孔子의(孔子+의) 기티신 글워리라
〔현대어 풀이 : 공자의 남기신 글이다〕

① ⓐ: '神靈(신령)'이 존칭의 유정 명사이므로 '수플'에 'ㅅ'이 결합한 것이군.
② ⓑ: 'ᄂᆞᆷ'이 유정 명사이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이므로 'ᄋᆡ'가 결합한 것이군.
③ ⓒ: '世界(세계)ㅅ'이 '보샤'의 의미상 주어이고, 'ㅅ'은 예외적 결합이군.
④ ⓓ: '이 사ᄅᆞᄆᆡ'가 '잇ᄂᆞᆫ'의 의미상 주어이고, 'ᄋᆡ'는 예외적 결합이군.
⑤ ⓔ: '孔子(공자)의'가 '기티신'의 의미상 주어이고, '의'는 예외적 결합이군.

37.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보기>의 조건이 실현된 예문을 만들어 보자.

<보 기>

ⓐ 현재 시제만 쓰일 것.
ⓑ 서술어의 자릿수가 둘일 것.
ⓒ 안긴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것.

실현 조건	예문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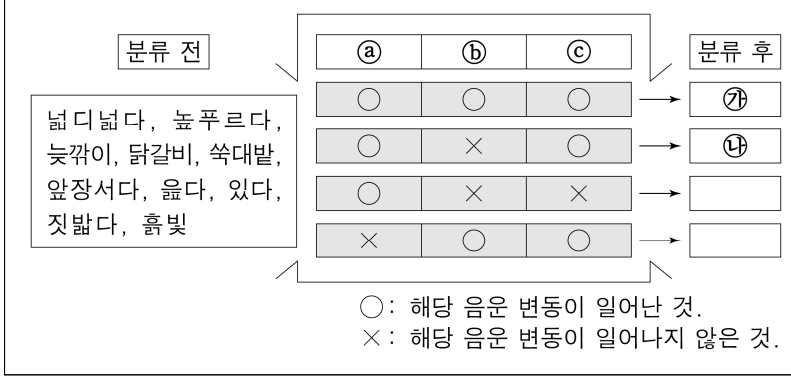
① ㉠: 그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② ㉠: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학교 근처에 사시는지요?
③ ㉡: 산중에 있으므로 여기는 도시보다 조용합니다.
④ ㉡: 오늘부터 아침으로 과일만 먹기로 마음먹었니?
⑤ ㉢: 오래전 큰아버지께 받은 책에 곰팡이가 슬었어.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 ㉯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음운의 변동 가운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를 학습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운 변동의 적용 유무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그럼, 표준 발음을 고려해서 다음 단어들을 분류해 보죠.



	㉮	㉯
①	짓밟다	늦깎이
②	넓디넓다	있다
③	읊다	높푸르다
④	흙빛	쑥대밭
⑤	닭갈비	앞장서다

39.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희철, 민수, 기영이 ○○ 서점 근처에서 만난 상황)

희철: 얘들아, 잘 지냈어? 3일 만에 보니 반갑다.

민수: 동해안으로 체험 학습 다녀왔다며? ㉠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발표 준비하자. 기영인 어떻게 생각해?

기영: ㉡ 네 말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정수도 부를까?

희철: 그러자. ㉢ 저기 저 ○○ 서점에서 오전 10시에 만나서 다 같이 도서관으로 가자. ㉣ 정수한테 전할 때 서점 위치 링크도 보내 줘. 전에도 헤맸잖아.

민수: 이제 아냐. ㉤ 어제 나랑 저기서 만났는데 잘 ㉥ 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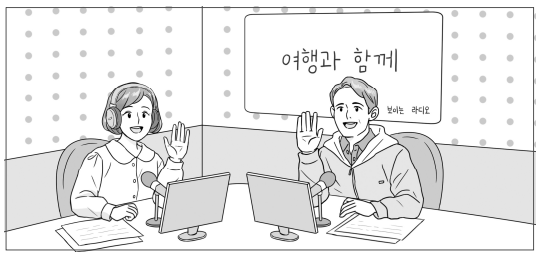
희철: 그렇구나. 어제 잘 ㉦ 왔었구나.

민수: 아, 기영아! ㉧ 우리는 회의 가야 돼. ㉨ 네가 ㉩ 우리 셋을 대표해서 정수에게 연락을 좀 해 줘.

① ㉠은 ㉤과 달리 발화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인지가 정해진다.
② ㉢은 ㉡과 달리 지시 표현이 이전 발화를 직접 가리킨다.
③ ㉣은 ㉨과 달리 담화 참여자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진다.
④ ㉥은 ㉦과 달리 화자가 있던 장소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⑤ ㉧은 ㉩과 달리 담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40~43] (가)는 보이는 라디오의 본방송이고, (나)는 이 방송을 들은 학생의 메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매주 수요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앱이나 문자로 언제든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는 실시간 댓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여행가 안○○ 님을 모셨습니다.

여행가: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진행자: 지난주부터 등대 스탬프 여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그중 '재미있는 등대'라는 주제를 소개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여행가: 네, 오늘은 '풍요의 등대'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16개 등대와 □□ 생물 자원관을 돌아보면서 풍요로운 해산물도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입니다.

진행자: 이제부터 '풍요의 등대'에 속한 등대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곳이 있나요?

여행가: 저는 천사의 섬이라는 모티브를 살려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 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등대에 설치된 LED 조명이 켜지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곳인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는 전복 라면은 정말 맛있죠.

진행자: 정말 맛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로 지난주에 안내했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를 물으시네요. 예정된 건 아니지만 다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여행가: ⓒ 우선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여권은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종이 여권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대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고 사진을 촬영하시는 겁니다. 사진을 다 모으시면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을 하시는 거죠.

진행자: ⓓ 실시간 댓글로 6789 님께서 스탬프 여행의 주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행가: ⓔ 네, 앞에서 말씀드린 완주 인증은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엔 스탬프로 완주 인증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바뀐 거죠. 하지만 스탬프를 찍기 원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여전히 스탬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등대나 기쁨항 등대처럼 등대 주변에 스탬프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자: 스탬프가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는 거군요. 잠시만요, 나머지 등대를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2부에서 계속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풍요의 등대'의 완주 기념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행가: (테이블에 오르골을 올리며) 바로 이 등대 오르골입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진행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르골이 귀엽다는 반응이 많네요.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실제 모양이 궁금하시죠? 작고 예쁜 등대가 나무 상자 안에 있고, 오른쪽에 태엽을 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뵐게요.

(나)

등대 스탬프 여행을 여행 지리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겠어. ㉠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되 여행의 순서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표현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야지. ㉡ '△△ 등대'에 대한 슬라이드는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고, 슬라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어야지.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므로 지난주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② 본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한다.
③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방송에서 전달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여 조절한다.
④ 청각적 정보만 접할 수 있는 수용자가 있으므로 방송 중에 제공한 시각적 정보를 음성 언어로 풀어서 설명한다.
⑤ 수용자들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시간 댓글과 문자를 바탕으로 이어질 정보를 조정한다.

41. 다음은 (가)가 끝난 후의 청취자 게시판이다. 참여자들의 소통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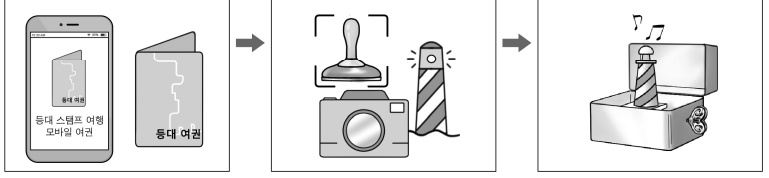
새달: 행복도 등대나 기쁨항 등대와 같이 등대 스탬프가 없는 곳도 있다는데요. 그 등대는 스탬프를 찍을 수 없군요.
↳ **알콩**: 저는 일반적인 등대와는 달리 등대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 스탬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사슴**: 알콩 님 말씀과 같이 스탬프가 있긴 해요. 행복도 등대는 행복도 역사관 내에, 기쁨항 등대는 선착장 앞에 있어요. 모두 찾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 **새달**: 사슴 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①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의 잘못된 이해가 '알콩'과 '사슴'의 댓글에 의해 수정되고 있다.
② 방송 내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공통된 생각에 '사슴'이 동조하고 있다.
③ 방송을 듣고 '새달'이 느낀 감정을 '알콩' 및 '사슴'과 공유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방송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새달'과 '알콩'의 서로 다른 생각이 '사슴'에 의해 절충되고 있다.
⑤ 방송 내용에 대한 '새달'과 '알콩'의 긍정적 감정이 '사슴'의 댓글로 인해 부정적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42.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발표 자료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풍요의 등대' 스탬프 여행의 순서 및 주의 사항

모바일 여권과 종이 여권 중 택1 하여 참가 신청하기 → 등대를 방문하여 스탬프 찍고 사진 촬영하기 →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완주 인증하기



- 인증은 스탬프가 아닌 날짜가 기록된 사진으로만 가능
- 사전에 스탬프 위치 확인

△△ 등대 - 천사의 날개와 선박을 형상화한 등대

특징: LED 조명이 만드는 이국적인 경관
주소: ▽▽도 ◇◇군 △△면
스탬프 위치: 등대 앞
볼거리: ◇◇ 철새 전시관, ◇◇산 전망대
먹을거리: 전복 라면, 복어 튀김, 소금 사탕
재밋거리: 자전거 여행, 조개 잡기 체험

① 여행가의 말을 정리하기로 한 ㉠은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의 순서와 주의 사항을 모아 하나의 슬라이드로 구성하자.
② 여행의 순서를 나타내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제시한 여행 순서를 구분하고 차례가 드러나게 화살표를 사용하자.
③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소개한 여행의 순서와 관련된 주요 소재를 그림 자료로 보여 주자.
④ 여행에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에는 여행가가 언급한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자.
⑤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로 한 ㉡은 여행가의 말을 가져와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달자.

43. ⓐ~ⓔ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종결 어미 '-ㅂ니다'를 사용하여, 방송을 듣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② ⓑ: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여행가를 높이고 있다.
③ ⓒ: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여권 선택의 주체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④ ⓓ: '있으시다'를 사용하여, 궁금증이 있는 주체인 '6789 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⑤ ⓔ: '말씀'을 사용하여, 화자인 여행가의 말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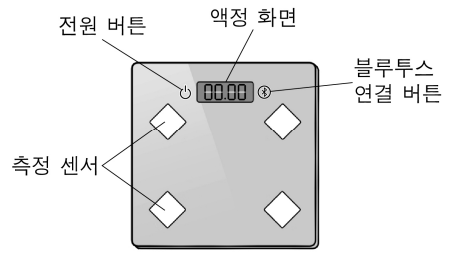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가)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나눈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용 설명서

1. 기기 구성 정보



2. 기기 연결 방법

1단계 [체중계] 전원 버튼을 눌러 체중계를 작동하세요.
2단계 [체중계]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3단계 [휴대 전화] **설정-블루투스-기기 찾기**를 선택하세요.
4단계 [휴대 전화] '연결 가능한 기기 목록'에서 ○○ **체중계**를 선택하세요.
5단계 [휴대 전화] ○○ 체중계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6단계 [휴대 전화] 앱에서 **기록**을 선택한 후 성별, 키 등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세요(기록한 정보는 개인 데이터 분석에 활용).

3. 기기 기능 안내(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능을 클릭)

몸무게 측정 개인 데이터 분석 자동 누적 기록 기타 기능

4. 기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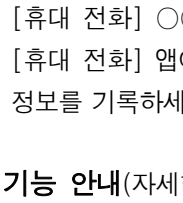
1) 앱 설치 바로 가기 : https://jgsw.com/app
2)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 : https://jgsw.com/set
3) 사용 설명서 다운로드 : https://jgsw.com/exp001

사용 설명서 정보 : 한국어 버전 2.1(2022. 10. 수정)

(나)

2023년 4월 15일

할머니 시윤아, 혹시 너도 이런 체중계 쓰니?



시윤 네!!! 저도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할머니 잘됐다.

할머니 혈압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해야 해서 하나 구입했어.

시윤 오! 할머니, 파이팅이에요!

할머니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아닌 거 같더라. 설명서를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너도 봐 볼래? https://jgsw.com/exp001

시윤 이거 기능 정말 많아요.

시윤 4. 기타 안내에 두 번째 기기 연결 동영상 바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따라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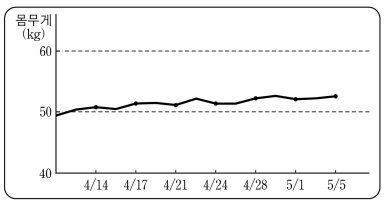
2023년 5월 6일

시윤 할머니, 체중계 잘 쓰고 계세요?

할머니 어, 잘 쓰고 있지. 매일 아침 기록하고 있어.

시윤 혹시 예전처럼 달력에다 손으로 직접 쓰고 계세요?

시윤 그거 다 이렇게 자동으로 앱에 기록돼요.



할머니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설명서에 이런 게 있었나?

시윤 이거 단순한 체중계가 … https://jgsw.com/exp001

↳[답장] 이게 저번에 할머니께서 저한테 보내 주신 설명서 링크예요. 이거 다시 보고 계시면 제가 이따가 전화해서 알려 드릴게요.

44.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기 구성 정보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했다.
② 기기를 휴대 전화와 연결하는 방법을 조작 순서에 맞추어 안내했다.
③ 기기 연결 방법에서 앱에 기록할 정보는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다르게 표시했다.
④ 기기 기능 안내에서는 안내받을 수 있는 기능의 항목을 나열하여 배치했다.
⑤ 사용 설명서의 버전 정보를 수정 시점과 함께 제공했다.

45.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내용이 (나)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여 유통할 수 있군.
② (나)의 사용자들이 서로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의 수정 과정을 점검할 수 있군.
③ (가)는 (나)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질문하여 요청할 수 있군.
④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군.
⑤ (가)와 (나)는 모두 정보를 교류한 이력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불러와 상대방에게 이전 내용을 환기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②	2	18	①	2	35	①	2	35	③	2
2	⑤	3	19	②	2	36	⑤	2	36	⑤	3
3	①	2	20	④	2	37	②	2	37	②	2
4	②	2	21	⑤	3	38	④	2	38	④	2
5	④	2	22	⑤	2	39	③	2	39	④	2
6	⑤	3	23	④	2	40	⑤	3	40	②	2
7	⑤	2	24	①	2	41	①	2	41	①	2
8	②	2	25	③	2	42	④	2	42	⑤	3
9	①	2	26	④	3	43	②	2	43	⑤	2
10	④	3	27	⑤	2	44	⑤	3	44	③	2
11	③	2	28	③	2	45	③	2	45	①	2
12	①	2	29	④	2						
13	③	2	30	②	3						
14	①	2	31	④	2						
15	②	2	32	②	2						
16	③	3	33	⑤	3						
17	④	2	34	③	2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의미를 고려하여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인 단어이다.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 직접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꿀'과 '벌'이 모두 어근이므로 합성어이다. 그리고 '꿀'과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일반적으로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에는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단어가 형성될 때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대낚'은 '낚싯대를 써서 하는 낚시질'을 뜻하는 '대낚시'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이다. 다음으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경우가 있다. '고법(高法)'은, '고등(高等)'과 '법원(法院)'이 결합하여 형성된 '고등 법원'이라는 말의 '고(高)'와 '법(法)'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가 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에 나가 교육 실습을 하는 학생'을 뜻하는 '교생(敎生)'은 '교육(敎育)'의 앞부분과 '실습생(實習生)'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었다.

이처럼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는,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낚'과 '대낚시'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고, '고법'은 '법원'의 일종이므로, '고법'과 '법원'은 상하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35.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용꿈'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군.
② '봄날'과 '망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군.
③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군.
④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⑤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고무신'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고무'와 '신'으로 분석할 수 있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형성된 단어	뜻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
ⓐ 흰자	알 속의 노른자위를 둘러싼 흰 부분	흰자위
ⓑ 공수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공격, 수비
ⓒ 직선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직접, 선거
ⓓ 민자	민간이나 사기업이 하는 투자	민간, 투자
ⓔ 외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영화	외국, 영화

① ⓐ는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과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② ⓑ는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유의 관계를 맺는다.
③ ⓒ는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④ ⓓ는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유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⑤ ⓔ는 ㉢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교체, 탈락, 첨가, 축약'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을 탐구해 보면,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 한 단어에 음운 변동이 한 번 일어난 예
  예 빗[빋], 여덟[여덜], 맨입[맨닙], 축하[추카]
- 한 단어에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
  예 밟는[밤:는], 닭장[닥짱]
- 한 단어에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예
  예 앞날[암날], 벚꽃[벋꼳]

이를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개씩 생각해 보자.
㉠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교체가 한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 '교체가 한 번, 축약이 한 번' 일어난 것
㉣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
㉤ '교체가 두 번, 첨가가 한 번' 일어난 것

① ㉠: 재밌는[재민는], 얽매는[엉매는]
② ㉡: 불이익[불리익], 견인력[겨닌녁]
③ ㉢: 똑같이[똑까치], 파묻힌[파무친]
④ ㉣: 읊조려[읍쪼려], 겉늙어[건늘거]
⑤ ㉤: 버들잎[버들립], 덧입어[던니버]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능동·피동 표현과 주동·사동 표현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 형이 동생을 업었다. ⓑ 동생이 형에게 업혔다. ⓒ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혔다. ⓓ 나는 동생이 책을 읽게 했다.

먼저 ⓐ, ⓑ에서 '형'을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꿀 때, 서술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말해 볼까요?

학생 : ㉠

선생님 : 맞아요. 그럼 ⓒ나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 : ㉡

선생님 : '-(으)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 ⓑ, ⓒ의 서술어에서 '-었-'을 '-고 있-'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와 ⓑ의 차이점이나 ⓐ와 ⓒ의 공통점을 말해 볼까요?

학생 : ㉢

선생님 : '-고 있-'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군요.

① ㉠ : ⓐ에서는 서술어에 '-으시-'를 넣어야 하지만, ⓑ에서는 '-시-'를 넣지 않습니다.
② ㉡ : ⓒ에서는 '동생에게'를 '할머니께'로 바꾸고, '읽혔다'에 '-시-'를 넣어야 합니다.
③ ㉡ : ⓓ에서는 '동생이'를 '할머니께서'로 바꾸고,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합니다.
④ ㉢ : ⓐ는 동작의 완료 후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는 그럴 수 없습니다.
⑤ ㉢ : ⓐ와 ⓒ는 모두 동작의 진행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39. <자료>를 바탕으로 <보기>의 ⓐ~ⓔ 중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 있는 것만을 고른 것은?

<보 기>

ⓐ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니]
ⓑ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 生人ᄋᆡ 소리 잇도소니 [생인(산 사람)의 소리가 있으니]
ⓓ 나혼 子息이 양ᄌᆡ 端正ᄒᆞ야 [낳은 자식이 모습이 단정하여]
ⓔ 내 닐오리니 네 이대 드르라 [내가 이르리니 네가 잘 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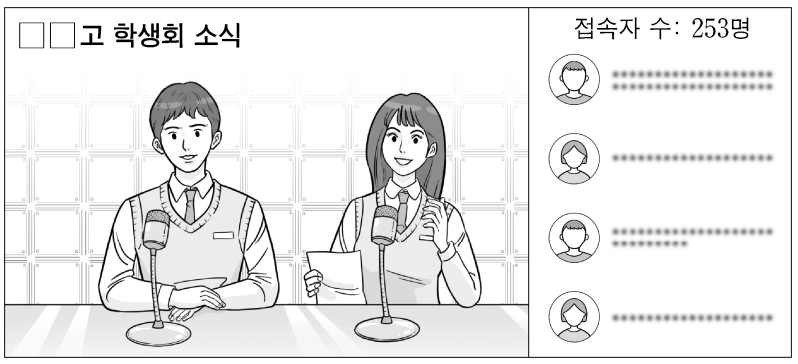
<자 료>

<보기>에 나타난 체언과 조사
- 체언 : 내ㅎ, 바ᄅᆞᆯ, 나라ㅎ, 말ᄊᆞᆷ, 中國, 生人, 소리, 子息, 양ᄌᆡ, 나, 너
- 조사 : 주격(이, ㅣ, ∅), 관형격(ㅅ, ᄋᆡ), 부사격(애, 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40~43] (가)는 학생회 소식을 알리는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이를 본 학생이 누리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켰다, 공약!' 세 번째 시간이죠.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인데요,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네요. ⓐ 오늘은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학생회장이 출연해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학생회장 : 네, ⓑ 우리 학교 학습실은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근데 자리가 많지 않고 특별한 원칙 없이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죠. 실시간 대화 창 볼까요?

[A] **동주** 맞아. 자리 맡고 오느라 종례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학년하고 같이 쓰려니 눈치도 보였고.

동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그래서 학생회가 나섰습니다.

□□고 학생회 소식

1. 학습실 사용 시 학년 구분이 필요한가?

구분	필요하다	필요없다	모르겠다	합계	전교생
응답 수(명)	512	10	14	536	617

2. 학년 구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가?

구분	합계	3학년	2학년	1학년
요일별 구분(명)	256	174	68	14
시간별 구분(명)	256	14	96	146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B] **다예** 설문 조사에 근거해 원칙을 마련하려고 한 것을 보니까,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 학생회, 힘내세요!

재호 다들 학년 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다른 게 신기해. 이유가 뭘까?

다예 학생, 감사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실 사용은 학생회에 신청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째, 학습실 사용은 학년별로 구분하되 3학년은 월·목, 2학년은 화·수, 1학년은 금요일에 사용합니다.

[C] **현지** 저는 1학년인데요, 금요일엔 일찍 집에 가고 싶은데, 금요일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좀 그래요.

연수 학생회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설문 결과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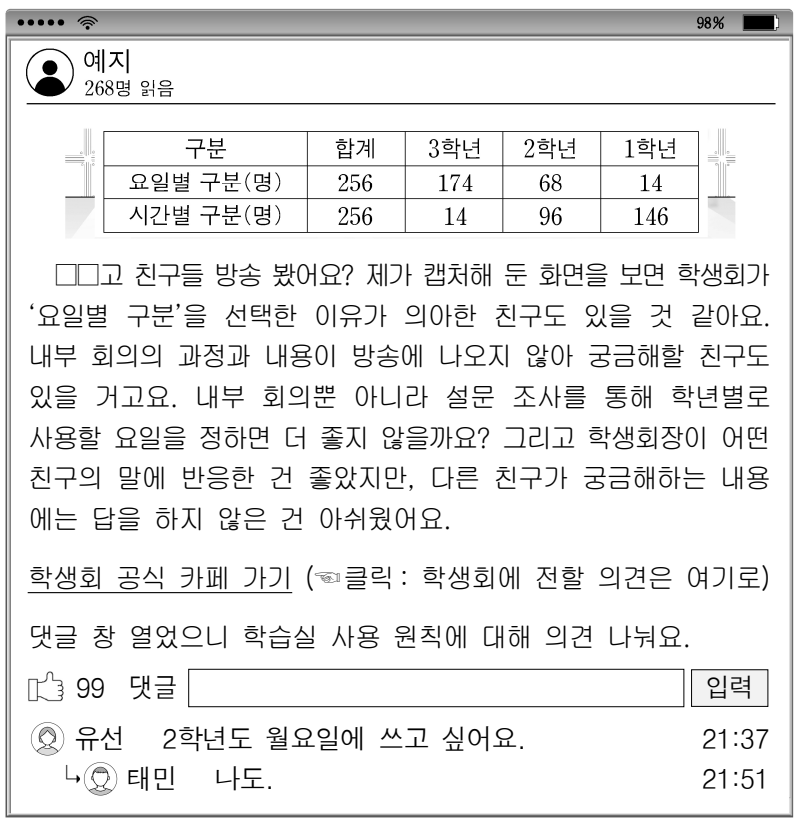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 ⓓ언제부터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라 학습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학생회장 : ⓔ네,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이번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저희 학생회 공식 카페로 보내 주시면, 참고하여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카페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진행자 : □□고 학생들, 다음에 만나요!

(나)



40.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진행자는 방송의 시작에 학교명을 언급하며, 소식을 들을 수용자를 밝히고 있다.
② 진행자는 접속자 수를 언급하며, 두 번째 방송과의 접속자 수 차이를 알려 주고 있다.
③ 학생회장은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④ 학생회장은 발화와 관련한 보충 자료로 표를 제시하며, 수용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⑤ 학생회장은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 동주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B] : 다예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③ [B] :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④ [C] : 현지는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였다.
⑤ [C] : 연수는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42. 다음은 (나)를 작성하기 위한 메모이다. ㉠~㉢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방송에서 학생회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네. 일단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보인 아쉬운 점과 사용 원칙 마련에 ㉡친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해야지. 또 ㉢친구들이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야지.

① ㉠ :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저장한 방송 화면의 일부를 보여 주었다.
② ㉠ :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말에는 호응하며 답을 들려주었지만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③ ㉡ : 내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년별 사용 요일 결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④ ㉢ : 자막으로 제공된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가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였다.
⑤ ㉢ :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 원칙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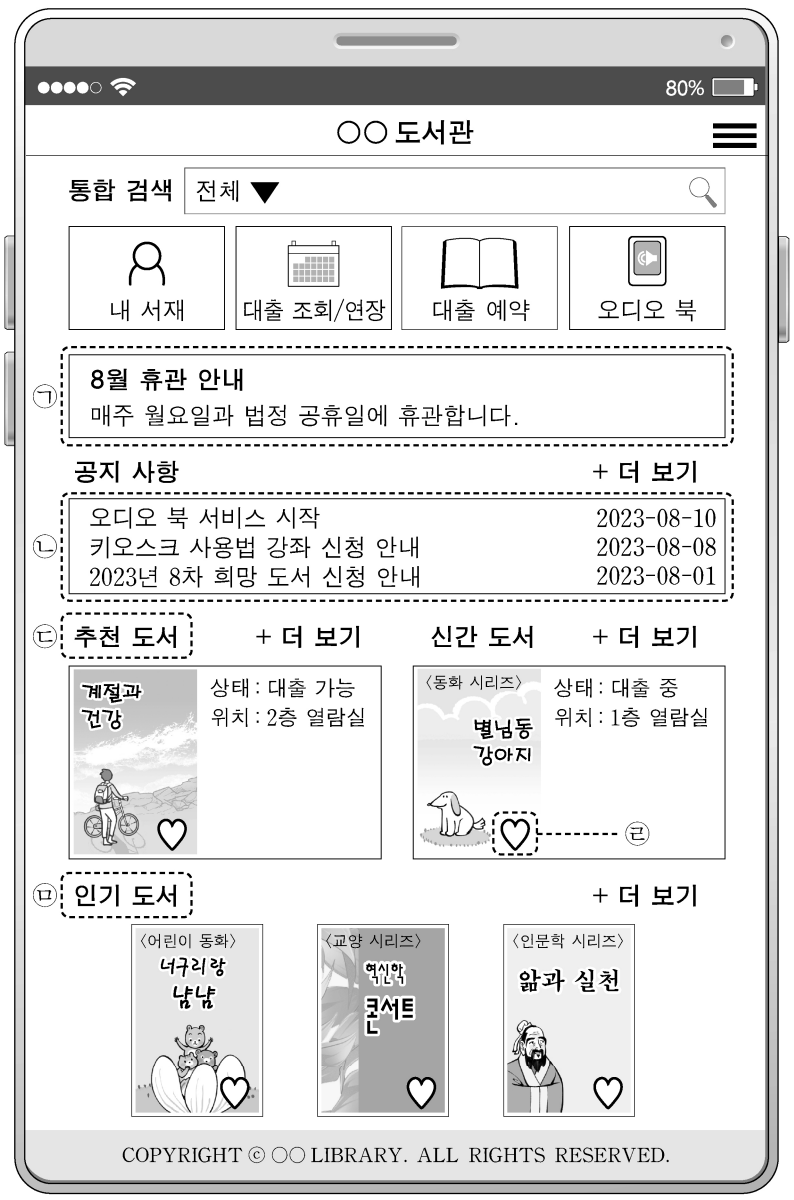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부사 '직접'을 사용하여, 학생회장이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 : 어미 '-어서'를 사용하여, 학습실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③ ⓒ : 어미 '-겠-'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④ ⓓ :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이 질문은 학습실 사용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 : 어미 '-면'을 사용하여, 사용 원칙이 적용되기 전에 갖춰져야 할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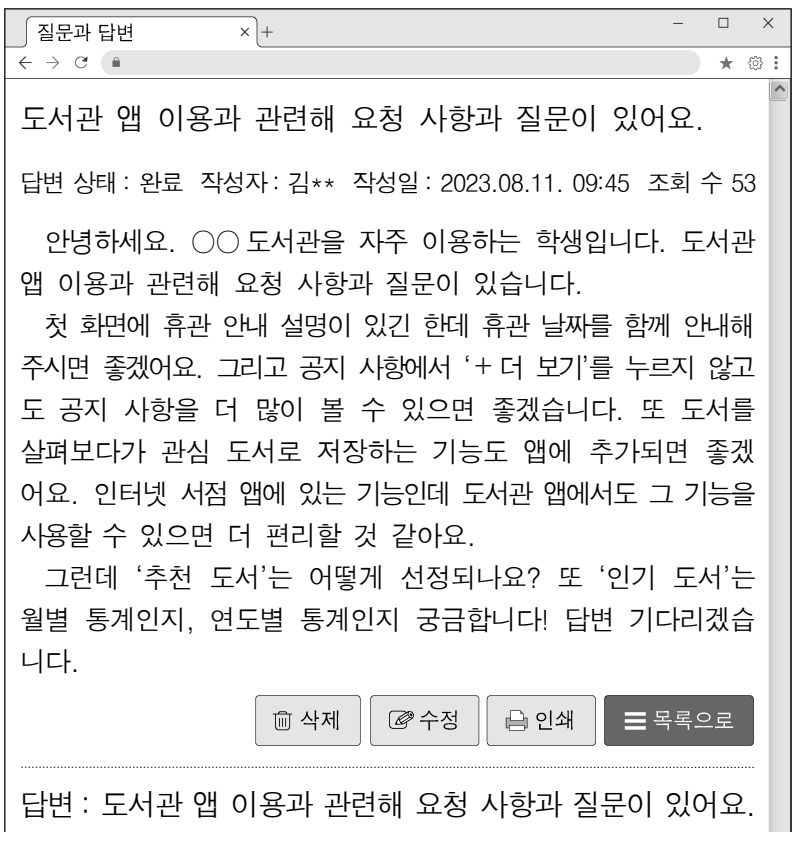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가)는 ○○ 도서관 앱의 첫 화면이고, (나)는 이 앱을 사용한 학생이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서의 답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질문과 답변

도서관 앱 이용과 관련해 요청 사항과 질문이 있어요.

답변 상태 : 완료 작성자 : 김** 작성일 : 2023.08.11. 09:45 조회 수 53

안녕하세요. ○○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도서관 앱 이용과 관련해 요청 사항과 질문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 휴관 안내 설명이 있긴 한데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지 사항에서 '+ 더 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공지 사항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서를 살펴보다가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되면 좋겠어요. 인터넷 서점 앱에 있는 기능인데 도서관 앱에서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천 도서'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또 '인기 도서'는 월별 통계인지, 연도별 통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삭제 수정 인쇄 목록으로

답변 : 도서관 앱 이용과 관련해 요청 사항과 질문이 있어요.

작성자 : 박** 작성일 : 2023.08.11. 15:53

안녕하세요. ○○ 도서관 사서입니다.

먼저 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휴관 안내에 대한 요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날짜도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 사항 목록이 늘어나면 앱의 특성상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드릴 것 같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또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앱의 '추천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합니다. '인기 도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또 '인기 도서'의 '+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된다.
② (가)에서는 (나)와 달리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된다.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다.
⑤ (나)에서는 (가)와 달리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45. ㉠~㉤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학생은 정보의 구체성을 고려하여 ㉠에 추가 정보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② 사서는 앱 화면의 구성을 고려하여 ㉡에서 보이는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겠다며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③ 사서는 정보 선정에 활용된 자료를 고려하여 ㉢의 선정 방식을 알려 주고 있다.
④ 학생은 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⑤ 사서는 정보의 추가 제공을 고려하여 ㉤을 여러 조건으로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안내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②	2	18	⑤	2	35	②	2	35	④	2
2	③	2	19	②	2	36	④	2	36	③	2
3	③	3	20	③	2	37	③	2	37	⑤	2
4	③	2	21	③	3	38	④	2	38	②	3
5	⑤	2	22	②	2	39	⑤	2	39	①	2
6	④	3	23	④	2	40	①	3	40	⑤	2
7	①	2	24	④	2	41	⑤	2	41	②	2
8	⑤	2	25	③	2	42	①	2	42	⑤	3
9	④	2	26	②	2	43	③	2	43	①	2
10	⑤	2	27	④	3	44	⑤	2	44	③	2
11	②	3	28	①	2	45	⑤	3	45	④	2
12	④	2	29	④	2						
13	⑤	2	30	⑤	2						
14	③	2	31	④	3						
15	⑤	2	32	②	2						
16	⑤	3	33	④	2						
17	①	2	34	①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짝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예: ㄱ → ㅋ)에 따라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중성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출자, 재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되 종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하여 실제 단어를 예로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ㅋ'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출자 'ㅗ'와 종성자 아음 이체자 'ㆁ'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자 용자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기본자	갈	노로	뫼(산)	셤	ᄒᆞ얌(뱀)		
가획자	콩	뒤(띠)	벌	죠ᄒᆡ(종이)			
		고티	파	채	부헝		
이체자	러울(너구리)					어름	아ᅀᅳ(아우)

〈중성자 용자례〉

기본자	ᄐᆞ/ᄃᆞ리	ᄆᆞᆯ/그력(기러기)		ᄀᆡ
초출자	논/벼로	밥	누에	ᄇᆞ섭
재출자	쇼	남샹(거북의 일종)	슈룹(우산)	뎔

〈종성자 용자례〉

8종성자	독	굼벙(굼벵이)	반되(변덧불이)	갇(갓)
	범	섭(섶)	잣	별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름'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법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화한 경우로는 ⓐ'고티'(>고치)나 '뎔'(>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모음이 변화한 경우에는, ⓑ'셤'(>섬)이나 '쇼'(>소)처럼 단모음화한 유형, 'ᄃᆞ리'(>다리)나 'ᄐᆞ'(>턱)처럼 'ㆍ'가 변한 유형, ⓒ'믈'(>물)이나 'ᄇᆞ섭'(>부엌)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 '노로'(>노루)나 '벼로'(>벼루)처럼 끝음절에서 'ㅗ>ㅜ' 변화를 겪은 유형 등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는 ⓓ'부헝'(>부엉이)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ᄀᆞᆯ'(>갈대)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본문 예시에서 후음 기본자는 'ㅇ', 아음 이체자는 'ㆁ'으로 표기함.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②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례 예시 단어의 종성에 쓰인다.
③ <초성자 용자례>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④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⑤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ㅓ'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종성자 순음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벼리 딘'(>별이 진)의 '딘'은 ⓐ에 해당한다.
② '셔울 겨샤'(>서울 계셔)의 '셔울'은 ⓑ에 해당한다.
③ '플 우희'(>풀 위에)의 '플'은 ⓒ에 해당한다.
④ '산 거믜'(>산 거미)의 '거믜'는 ⓓ에 해당한다.
⑤ '닥 닙'(>닥나무 잎)의 '닥'은 ⓔ에 해당한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ㅎ' 말음 용언의 활용 유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다음은 어간의 말음이 'ㅎ'인 용언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보이는 활용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활용의 규칙성뿐만 아니라 모음조화 적용 여부나 활용형의 줄어듦 가능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다.

불규칙 활용 유형		규칙 활용 유형	
㉠-1	노랗- + -아 → 노래	㉡-1	닿- + -아 → 닿아 (→ *다)
㉠-2	누렇- + -어 → 누레	㉡-2	놓- + -아 → 놓아 (→ 놔)
㉢	어떻- + -어 → 어때		

('*'은 비문법적임을 뜻함.)

① '조그맣-, 이렇-'은 '조그매, 이래서'로 활용하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② '꺼멓-, 뿌옇-'은 '꺼메, 뿌옜다'로 활용하므로 ㉠-2와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③ '둥그렇-, 멀겋-'은 '둥그렜다, 멀게'로 활용하므로 ㉢과 활용의 유형이 같지 않겠군.
④ '낳-, 땋-'은 활용형인 '낳아서, 땋았다'가 '*나서, *땄다'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1과 활용의 유형이 같겠군.
⑤ '넣-, 쌓-'은 활용형인 '넣어, 쌓아'가 '*너, *싸'로 줄어들 수 없으므로 ㉡-2와 활용의 유형이 같지 않겠군.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영민, 평화가 학교 앞에 함께 있다가 지혜를 만난 상황]

영민: 너희들, 오늘 같이 영화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평화: 응, ㉠6시 걸로 세 장 예매했어. 근데 너, 어디서 와?

지혜: 진로 상담 받고 오는 길이야. 너흰 안 가?

평화: 나는 어제 ㉡미리 받았어.

영민: 나는 4시 반이야. 그거 마치고 영화관으로 직접 갈게.

지혜: 알겠어. 그럼 우리 둘이는 1시간 ㉢앞서 만나자. 간단하게 저녁이라도 먹고 거기서 바로 ㉣가지 뭐.

평화: 좋아. 근데 ㉤미리 먹는 건 좋은데 어디서 볼까?

지혜: 5시까지 영화관 정문 ㉥왼쪽에 있는 분식집으로 와.

평화: 왼쪽이면 편의점 아냐? 아, 영화관을 등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구나. 영화관을 마주볼 때는 ㉦오른쪽 맞지?

지혜: 그러네. 아참! 영민아, 너 상담 시간 됐다. 이따 늦지 않게 영화 ㉧시간 맞춰서 ㉨와.

① ㉠과 ㉧은 가리키는 시간이 상이하다.
②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
③ ㉢과 ㉤이 가리키는 시간대는 ㉧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④ ㉣과 ㉨은 이동의 출발 장소가 동일하다.
⑤ ㉥과 ㉦은 기준으로 삼은 방향이 달라 다른 곳을 의미한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부사어는 부사, 체언+조사, 용언 활용형 등으로 실현된다. 부사어로써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등이다. 일례로 '차가 간다.'의 서술어 '간다'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잘'을 부사어로 쓰면 '차가 잘 간다.'가 된다. [조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에 부사어를 넣어 수정해 보자.

[조건]

㉠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체언+조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서술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어로 쓴 문장

⋮

	조건	수정 전 ⇨ 수정 후
①	㉠, ㉡	영미는 그 일을 처리했다. ⇨ 영미는 그 일을 원칙대로 깔끔히 처리했다.
②	㉠, ㉣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 전혀 딴 사람이 그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다.
③	㉡, ㉤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 그를 무턱대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④	㉢, ㉣	화가가 굵은 선을 쭉 그었다. ⇨ 화가가 조금 굵은 선을 세로로 쭉 그었다.
⑤	㉢, ㉤	웃는 아기가 귀엽게 걷는다. ⇨ 방긋이 웃는 아기가 참 귀엽게 걷는다.

[40~43] (가)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고, (나)는 동아리 누리집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식' 열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여 년간 대학에서 어문 규범을 가르쳐 오신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 짜장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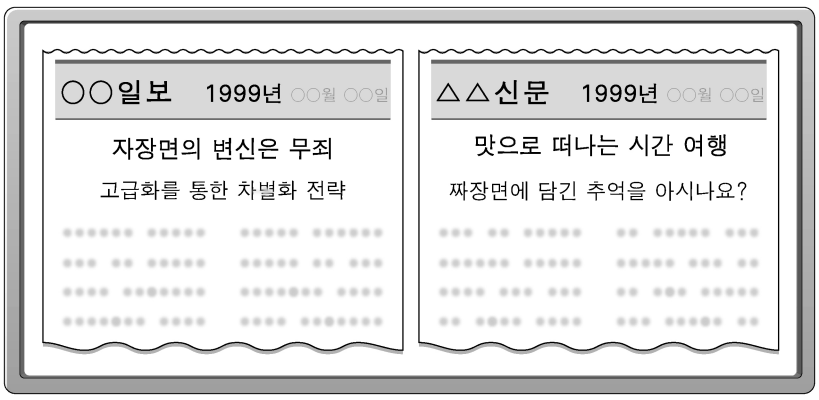
전문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짜장면이, 한때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행자: ㉠아, 예전에 그런 내용을 본 적 있어요.

전문가: 네, 전에는 자장면만 표준어였죠. ㉡짜장면은 2011년 8월 31일에서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표준어로 인정되기 전에도 짜장면이 흔히 쓰이지 않았나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문 기사를 보시죠.



진행자: 음, 화면을 보니 같은 해에 나온 기사인데도 자장면과 짜장면이 둘 다 쓰이고 있네요?

전문가: 네, 보시는 자료 이외에 다른 신문 기사에도 짜장면이라는 표기가 나타납니다. 비교적 어문 규범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할 정도로, 일상에서 짜장면이 널리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복수 표준어 선정을 위해 실시한 발음 실태 조사에서도, 비표준어였던 짜장면이 표준어인 자장면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이 사용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군요.

전문가: 당시 언중들이 일상에서는 어문 규범과 달리 짜장면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진행자: 그러면 사람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거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짜장면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고 자장이라 표기하면서도 짜장으로 발음해 온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짜장면이 자장면의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짜장면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어도 언젠가 표준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 있겠군요.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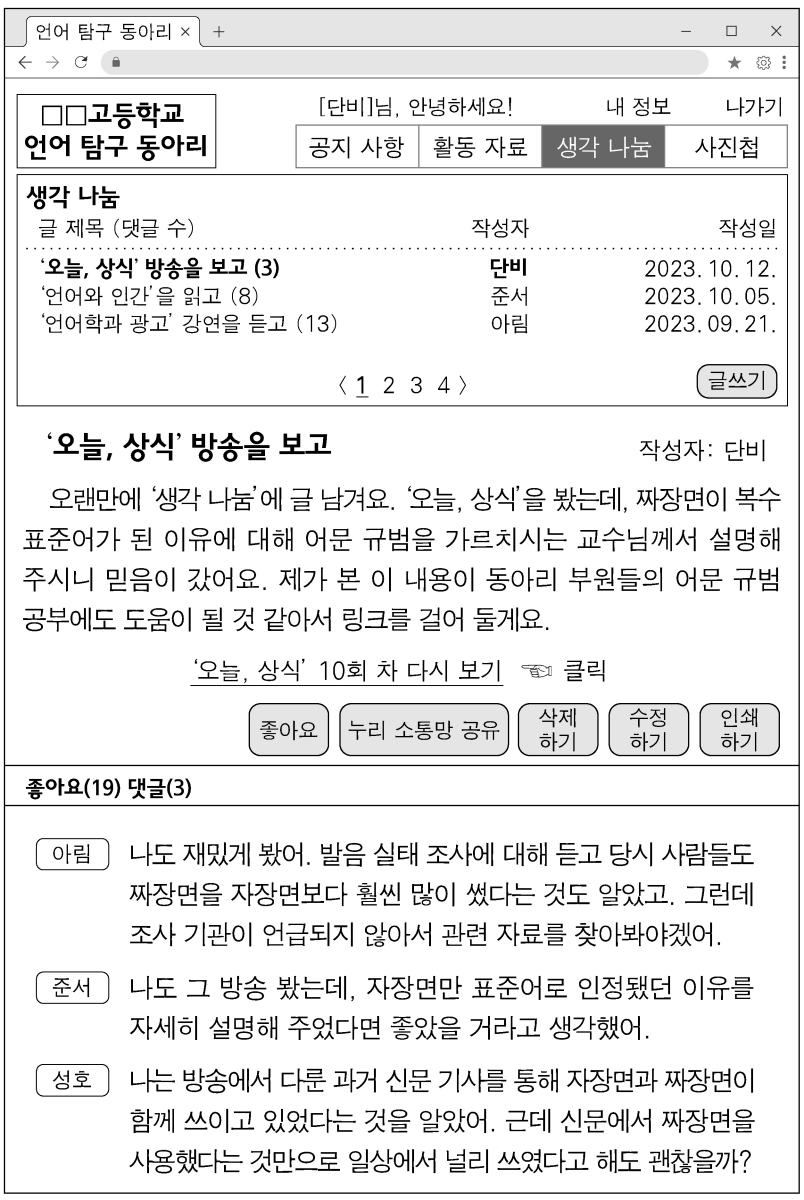
전문가 : 맞습니다. ㉣ 표준어가 아닌 말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 표준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진행자 : ㉤ 말씀을 듣고 보니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오늘은 우리말에 대한 상식을 하나 더 배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 : 고맙습니다.

진행자 : 오늘 방송은 공식 누리집에서 언제든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나)



40.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행자'는 방송의 취지를 밝히며 방송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였다.
② '진행자'는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방송 내용을 재확인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을 안내하였다.
③ '전문가'는 방송의 첫머리에 '진행자'와 문답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④ '전문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⑤ '전문가'는 시청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시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② 게시물에 반응할 수 있는 공감 표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③ 게시물을 누리 소통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④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는 범주가 항목별로 설정되어 있다.
⑤ 게시물에는 다른 누리집에 있는 정보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42. (가)에 대해 (나)의 학생들이 보인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비'는 정보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② '단비'는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이유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아림'은 발음 실태 조사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준서'는 자장면만 표준어로 인정됐던 사실에 주목하여 그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⑤ '성호'는 과거의 신문 기사를 다룬 내용에 주목하여 방송에서 다루는 정보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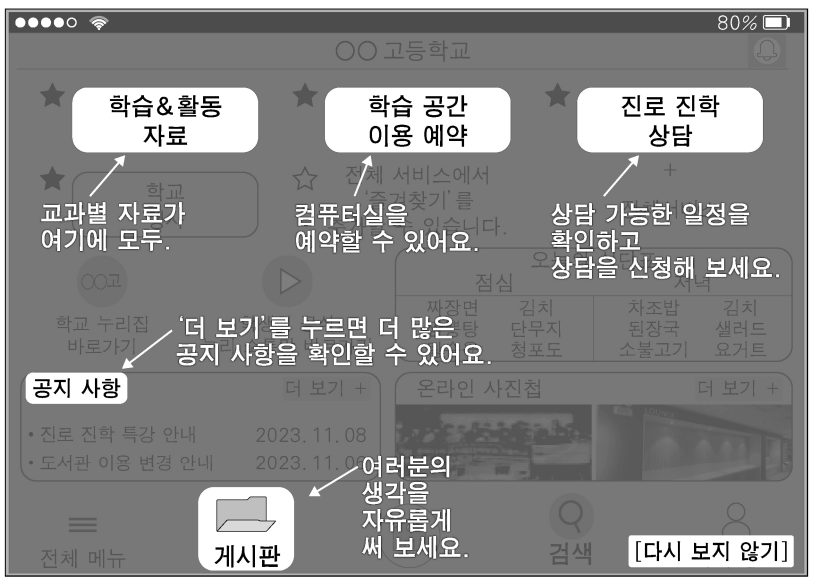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직전 발화와 관련된 '진행자'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
②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행위의 대상인 짜장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 보조 용언 '못하다'를 사용하여, 어문 규범이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일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 '-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표준어가 아닌 말이 표준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 '-고 보다'를 사용하여, '진행자'가 특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난 후임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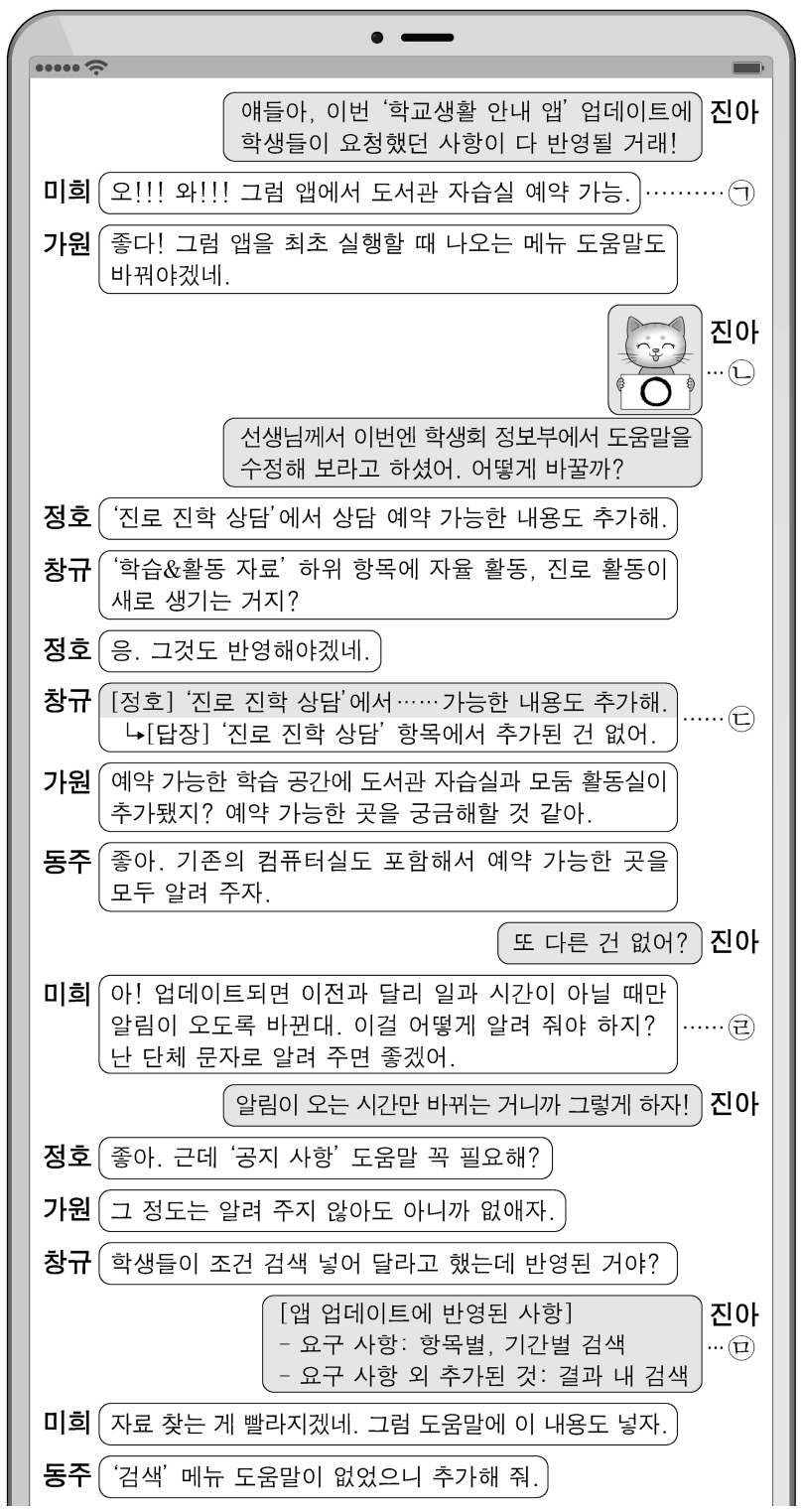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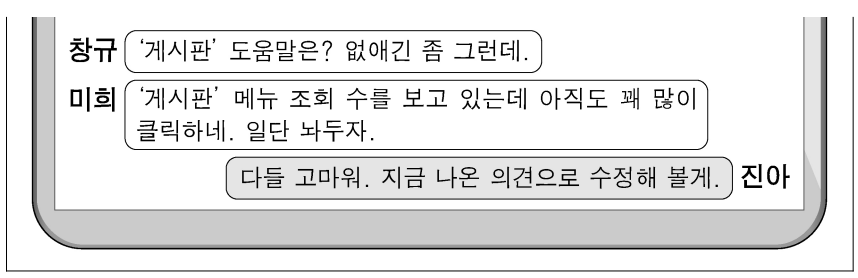
[44~45] (가)는 '학교생활 안내 앱'을 최초 실행할 때의 화면이고, (나)는 학생회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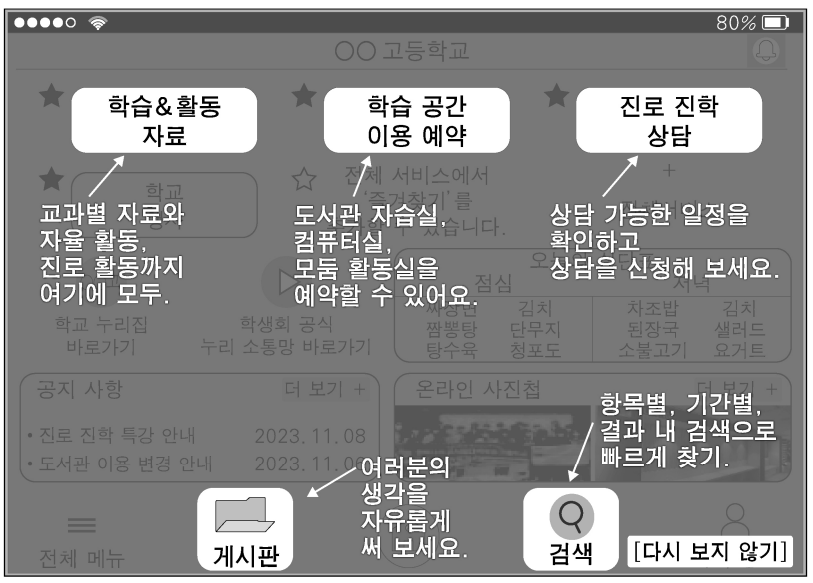




44.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느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였다.
②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에 동의를 표현하였다.
③ ㉢: 대화 내용을 복사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였다.
④ ㉣: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변경된 알림 전송 시간대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 줄을 바꾸는 방식으로 글을 입력하여, 변동 사항을 구분하여 안내하였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고 할 때, 수정한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학습&활동 자료'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항목의 변화에 대한 '창규'와 '정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② '학습 공간 이용 예약'에 대한 도움말은 이용 예약이 가능한 공간 추가에 대한 '가원'과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③ '공지 사항'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도움말의 필요성에 대한 '정호'와 '가원'의 대화를 반영하여 삭제되었다.
④ '게시판'에 대한 도움말은 메뉴 이용 빈도에 대한 '창규'와 '미희'의 대화를 반영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
⑤ '검색'에 대한 도움말은 검색 자료의 변화에 대한 '미희'와 '동주'의 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8	②	2	35	④	2	35	④	2
2	③	2	19	①	2	36	⑤	2	36	④	2
3	①	3	20	③	2	37	④	2	37	①	2
4	⑤	2	21	⑤	3	38	④	2	38	③	2
5	③	2	22	②	2	39	⑤	2	39	④	3
6	②	3	23	①	2	40	①	3	40	②	2
7	②	2	24	③	2	41	③	2	41	①	2
8	③	2	25	③	2	42	③	2	42	⑤	2
9	①	2	26	②	2	43	②	2	43	③	2
10	⑤	3	27	⑤	3	44	⑤	2	44	③	2
11	②	2	28	①	2	45	①	3	45	⑤	3
12	③	2	29	④	2						
13	①	2	30	①	2						
14	④	2	31	②	3						
15	④	2	32	②	2						
16	⑤	3	33	③	2						
17	④	2	34	④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를 때 사용되는 말은 지칭어, 그 대상을 부르는 말은 호칭어라고 한다. 지칭어 중에는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칭어가 호칭어로 쓰이는 경우에 그 형식은 다양하다. 단순하게는 '홍길동, 아버지, 당신, 여보' 등과 같이 명사, 대명사, 감탄사 등의 단어로 실현된다. 또 그 단어에 다른 단어나 '-님' 같은 접미사가 결합되는 복합적 형식도 있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그 사람의 신분, 직위, 대화 참여자와의 사적·공적 관계 등에 따라 지칭어나 호칭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화자와 상대방 혹은 제삼자가 사적 관계에 있고 대화의 상황이 비격식적이라면 그 대상을 이름이나 친족어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예컨대 ㉡ '홍길동'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길동이, 삼촌, 아빠'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 공적 관계에 있고 격식적인 대화 상황이라면 그 대상을 공적인 직위나 지위 등을 사용하여 이르거나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앞서 언급한 '홍길동'이 '이사'란 직위에 있다면 그를 '홍 이사, 홍길동 이사님' 등으로 이르거나 부를 수 있다. 또한 ㉤ 특수한 의도를 가지고 지칭어나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공적인 상황에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적인 호칭어를 쓰기도 한다.

한편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 중에는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이들은 다시, 대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칭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불분명한 부정칭으로 나뉜다. 예컨대 '너희 학교는 어디야?'의 '어디'는 전자에, '어디 좀 가자.'의 '어디'는 후자에 해당된다. '어디 가?'의 '어디'는 맥락에 따라 전자와 후자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대명사 외에 명사, 관형사, 부사 등도 알지 못함이나 불분명함을 나타낼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이 과일 한 상자에 ⓐ 얼마예요?
○ 그는 ⓑ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
○ 지리산은 ⓒ 언제 보아도 아름답겠지?
○ 밖에 ⓓ 어떤 분이 오셨어요?

① ⓐ, ⓑ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
② ⓐ, ⓒ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③ ⓐ, ⓓ는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④ ⓑ, ⓒ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
⑤ ⓑ, ⓓ는 알지 못함과 불분명함을 모두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36. 다음 ㉮~㉰를 통해 윗글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아들 : ㉮ 엄마,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 음, 그래! 그럼 주말에 이모에게 상담 좀 받아 볼까?
딸 : 엄마, ㉯ 이모도 주말에 쉬셔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들 : 아니야. 전에 사촌 누나가 그러던데 이모 주말에 특별한 일 없으시대.
아빠 : ㉱ 여보세요. ㉲ 김 선생님의 사생활도 생각 좀 하시죠? 그리고, ㉳ 김수진 님! 본인 아드님 진로 상담은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엄마 : 김 부장님, 제가 언니한테 잘 부탁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아빠 : 그럼 ㉴ 이모님께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상담도 집중해서 잘 받아라.

① ㉠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와 지칭어 ㉳를 통해 확인된다.
② ㉡은 지칭어 ㉯와 ㉴로도 확인되는데 비록 화자와 대상의 친족 관계가 다르더라도 같은 형식의 지칭어가 쓰일 수 있음이 확인된다.
③ ㉢은 공적이고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인 호칭어 ㉳를 통해 확인된다.
④ ㉣은 지칭어 ㉯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호칭어 ㉲로 실현된 데에서도 확인된다.
⑤ ㉤은 화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청자에게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호칭어 ㉱를 사용하는 데에서 확인된다.

37. 밑줄 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및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할아버지는 형님 댁에 계신다.
　여객선이 도착한 항구엔 안개가 꼈다.
② 저 친구는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그는 배에서 내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③ 나는 이 호박을 죽으로 만들 것이다.
　아버지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④ 얼음으로 된 성이 나타났다.
　그는 남이 아니고 가족이다.
⑤ 그의 신중함은 아무래도 지나쳤다.
　언니는 간이역만 지나치는 기차를 탔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한 단어에서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이들 간에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 먼저 일어난 음운 변동 결과로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날 조건이 마련되기도 하지요. 예컨대, '찾는'은 [찬는]으로 발음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비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에요. ㉠~㉤에서 이런 순서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 ⓒ 비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활용해 설명해 봅시다.

㉠ 실없네[시럼네]	㉡ 깊숙이[깁쑤기]
㉢ 짓밟지[짇빱찌]	㉣ 꺾는[껑는]
㉤ 훑고[훌꼬]	

학 생 : [A]

선생님 : 네, 맞아요.

①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②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③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④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⑤ ㉤은 ⓑ가 일어나 ⓐ가 일어날 조건이 마련된 것이네요.

39. <탐구 활동>의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활동>

차자 표기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차자 표기된 한자는 한자의 훈이나 음으로 읽게 된다. 이때 한자의 본뜻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아래는 이러한 차자 표기 방식들을 '水(물-수)'로써 응용해 보인 것이다.

	훈으로 읽음	음으로 읽음
본뜻 유지	예) '水'를 '물'의 뜻으로 '물'로 읽음 …… ㉠	예) '水'를 '물'의 뜻으로 '수'로 읽음
본뜻 무시	예) '水'를 '물'의 뜻과 상관없이 '물'로 읽음 …. ㉡	예) '水'를 '물'의 뜻과 상관없이 '수'로 읽음 …. ㉢

다음 한자(훈-음)를 이용해 차자 표기를 해 보고 그 방식을 설명해 보자.

火(불-화), 土(흙-토), 多(많다-다), 衣(옷-의), 乙(새-을)

예컨대, 고유어 표현 (ⓐ)의 밑줄 친 부분을 (ⓑ)로 표기하고 (ⓒ)(으)로 읽는다면 (ⓓ)의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	ⓑ	ⓒ	ⓓ
①	불빛이 일다	火	불	㉠
②	진흙이 굳다	土	흙	㉠
③	웃음이 많다	多	다	㉡
④	시옷을 적다	衣	옷	㉡
⑤	찬물을 담다	乙	을	㉢

[40~43]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독도 바다사자를 아십니까? ⓐ 독도 바다사자는 예전에 독도와 인근 해역에 살았던 바다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도 바다사자는 멸종된 지 오래되어 현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도 옛 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이 바다사자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역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 기자입니다.

기자 : 저는 지금 독도 인근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은 독도 바다사자의 주요 서식지이자 번식지였습니다. 하지만 ⓒ 일제 강점기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줄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는 1994년에 독도 바다사자를 멸종 동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독도 옛 모습 찾기를 위해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 ⓓ 독도 바다사자는 다른 멸종 위기 동물보다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 않고, 독도 지역은 서식 환경의 적합성 면에서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독도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독도 바다사자 복원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 전문가들도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복원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 독도 바다사자의 경우 동일 개체종이나 동일 개체군으로의 복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베링해 등에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을 찾아서 들여오는 방식으로의 복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독도 바다사자는 독도 해역을 중심으로 베링해 인근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링해 등에서 개체군을 들여와도 문제없이 잘 서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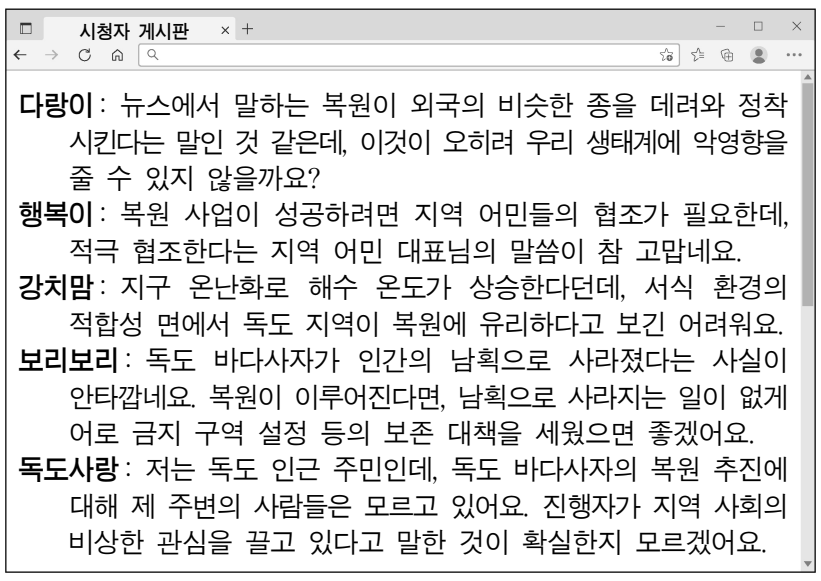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기자: 지역 사회도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여 독도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지역 어민 대표: 독도 바다를 누비던 독도 바다사자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조해야지요.
기자: 일각에서는 동물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동물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에는 정확한 실태 조사,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 독도 바다사자를 성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면, 독도의 옛 모습을 찾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김◇◇ 기자였습니다.

4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은 보도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취재 현장에서 보도하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 ㉢은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보도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와 문자를 사용하여 복합 양식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 ㉢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인터뷰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④ ㉠, ㉡, ㉢은 보도의 주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화면 상단에 제시하고 있다.
⑤ ㉠, ㉡, ㉢은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정보를 화면 하단의 자막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41. 다음은 위 뉴스에 대한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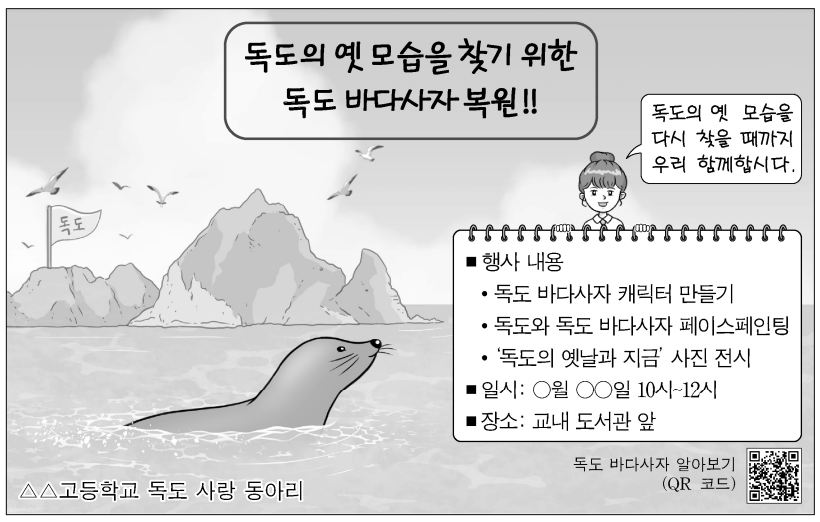


① '다랑이'는 '전문가'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② '행복이'는 '지역 어민 대표'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자신이 이해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③ '강치맘'은 '관계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그것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④ '보리보리'는 '기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⑤ '독도사랑'은 '진행자' 발화의 일부 내용에 주목하여 그것이 실제 사실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를 다른 지역의 바다사자와 비교한다.
② ⓑ: 보조사 '만'을 사용하여, '1900년대 초까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표현한다.
③ ⓒ: 연결 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개체 수의 감소 국면이 반전되었음을 표현한다.
④ ⓓ: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⑤ ⓔ: 피동사 '전망되다'를 사용하여, 독도 바다사자 복원의 주체를 숨기고 있다.

43. 위 뉴스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독도 옛 모습 찾기 캠페인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아래와 같이 만들었다고 할 때, 포스터의 정보 제시 및 구성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른쪽 하단에 QR 코드를 제시했다.
② 행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상위와 하위 항목의 글자 크기와 굵기를 서로 달리하여 제시했다.
③ 캠페인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홍보용 포스터 제목을 글 상자에 넣어 상단 중앙에 제시했다.
④ 독도 옛 모습 찾기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기 위해, 학생의 말풍선에 청유 형식의 문구를 제시했다.
⑤ 독도와 독도 바다사자가 함께하는 독도의 옛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독도를 배경으로 독도 바다사자가 헤엄치는 모습을 이미지로 제시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다음은 '졸업 앨범 앱' 시안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나영 : 이제 화상 회의 시작할게. 근데 수민이가 참석을 못 한다고 하니, 회의를 녹화해서 파일로 저장할게. 다들 동의하지?

지현, **민진**, **윤하**, **서형**, **은준** : 그래, 알았어.

채팅	나영 님이 회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귓속말 (1:1채팅)	
	은준→나영 나영아, 근데 수민이 무슨 일 있어? 걱정되네. ㅠㅠ
	나영→은준 몸이 좀 아프대. 회의 끝나고 연락해 보자.

지현 : '졸업 앨범 앱' 시안 제작을 위해 친구들이 학생회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판에 의견을 제출해 주었어. 함께 검토해 보자. 게시판 주소를 보내 줄게.

채팅	https://www.○○고.kr/○○고학생회

민진 : 많은 의견 중에 반영할 의견을 고르려면 소회의실을 만들어 진행해야 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나영 : 좋은 생각이야. 회의실은 내가 만들어 줄게.

채팅	소회의실 회의가 시작되어 지정된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채팅	소회의실 회의가 종료되어 전체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나영 : 자, 그럼 소회의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공유해 보자.

지현 : 우리 모둠에서는 본인이 쓴, 간직하고 싶은 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 '나의 서재' 같은 메뉴를 추가하면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진 : 그럼 메뉴는 우리가 처음 구상한 것에 '나의 서재'를 추가해서 '나의 방', '나의 서재', '조별 사진', '단체 사진', '행사 사진'으로 하면 되겠다.

은준 : 우리 모둠에서는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어. '나의 방' 메뉴에 계정 주소 입력 공간을 만들고 입력하게 하는 건 어때?

윤하 : 좋아. 그러면 '친구 찾기' 메뉴도 만들어서 친구를 검색하면, 입력된 친구 계정에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바로 가기'를 추가하자.

지현 : 그럼, 추가한 '친구 찾기' 메뉴에 '쪽지 보내기' 기능을 넣어서, 친구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게 하면 어때?

은준 : 우리도 '쪽지 보내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려 했었어. 발신자가 쪽지를 보내면 수신자 휴대 전화에 알림이 가게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니 함께 반영하자.

서형 : '학교 누리집 바로 가기'를 넣어 달라는 의견도 있던데, 페이지로 연결은 간단하니 이것도 반영하는 걸로 하자.

윤하 : 그래, 다양한 기능이 많이 생기겠다.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사진을 볼 수 있게, '슬라이드 자동 넘김'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어.

민진 : 좋은 생각이네. '행사 사진' 메뉴에 적용하면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기능이 실제로 가능한가?

서형 :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봤어. 영상을 공유해 볼게.

채팅	서형 님이 영상 공유를 시작합니다.

나영 : 영상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 잘 반영해서 ㉠ 최종 시안이 나오면 다시 공유할게.

44. 윗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영'은 회의 참여가 불가능한 '수민'을 위해 회의를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저장했다.
② '지현'은 게시판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학생회 사회 관계망 서비스 게시판 주소를 전송했다.
③ '민진'은 게시판에 제출된 의견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회의실' 기능의 활용을 제안했다.
④ '은준'은 개인적으로 친구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활용하여 '나영'과 대화했다.
⑤ '서형'은 '슬라이드 자동 넘김'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 공유' 기능을 사용했다.

45. 위 회의를 바탕으로 ㉠을 아래와 같이 제작했다고 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앱 이용 중에 학교 누리집에 접속할 필요가 있을 때, ⓐ를 이용하면 편리하겠군.
② 사용자는 '친구 찾기'에서 친구가 ⓑ에 입력해 둔 계정 주소를 통해 친구 계정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겠군.
③ 학교생활 중에 썼던 글을 ⓒ에 올려 두면, 저장한 글을 보고 싶을 때 다시 열어 볼 수 있겠군.
④ 학교 행사들을 추억하고 싶을 때 ⓓ를 이용하면 시간 순서에 따라 행사 사진들을 다시 볼 수 있겠군.
⑤ ⓔ를 사용하여 쪽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리려면 수신자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접속해야 하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8	④	2	35	③	2	35	④	2
2	②	2	19	③	2	36	④	2	36	⑤	3
3	②	3	20	③	2	37	⑤	2	37	①	2
4	①	2	21	④	3	38	①	2	38	①	2
5	⑤	2	22	①	2	39	⑤	2	39	③	2
6	②	2	23	②	2	40	④	3	40	②	2
7	①	3	24	⑤	2	41	⑤	2	41	②	2
8	④	2	25	②	2	42	②	2	42	④	2
9	①	2	26	⑤	3	43	④	2	43	②	2
10	③	3	27	②	2	44	③	2	44	⑤	2
11	③	2	28	③	2	45	②	3	45	⑤	3
12	④	2	29	④	2						
13	⑤	2	30	③	3						
14	④	2	31	⑤	2						
15	①	2	32	④	2						
16	①	3	33	③	2						
17	②	2	34	③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현상인 품사 통용도 이러한 경우 중 하나이다. 가령 '그는 세계적 선수이다.'의 '세계적'은 관형사이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명사이므로 '세계적'은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또한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와 '그는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는 각각 명사와 부사이므로 '그저께'도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이다. 이처럼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에는 '약간'도 있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그 품사에 따라,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으로'와 '이다' 등과 같은 격 조사와 결합하지만 관형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 조사와 결합한다.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격 조사와 결합해 문장의 부사어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데 관형사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항상 관형어로 쓰인다. 그리고 명사 '그저께'는 격 조사와 결합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런데 국어에는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먼저 ㉠ 하나의 명사가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분다.'의 '바람'은 관형어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고, '그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했다.'의 '바람'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이다. 다음으로 ㉡ 하나의 동사가 본동사와 보조 동사로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나는 힘을 내었다.'의 '내다'는 보조 동사 없이도 문장의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본동사이고, '나는 고난을 견뎌 내었다.'의 '내다'는 본동사 없이는 문장에 쓰일 수 없는 보조 동사이다. 이를 통해, '바람'과 '내다'는 그 쓰임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말의 유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의 '그저께'와 '그저께 본 달은 매우 밝았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②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과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의 '그저께'는 품사가 서로 같다.
③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와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의 '세계적'은 품사는 서로 다르지만 문장 성분은 서로 같다.
④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의 '그저께'와 '꽃이 그저께 피었다.'의 '그저께'는 품사도 서로 다르고 문장 성분도 서로 다르다.
⑤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의 '세계적인'과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으로'는 모두, 명사에 조사와 어미가 결합한 문장 성분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인다.

ⓐ 나는 급한 마당에 실수로 결재 서류를 휴지통에 버렸다.
ⓑ 나는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자전거 바퀴를 깨끗이 닦았다.
ⓒ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넓은 마당을 일곱 바퀴나 돌았다.
ⓓ 산꼭대기에 구름이 약간 껴 가지고 경치가 좋아 보였다.
ⓔ 나는 모임을 가지고 난 후 아주 급히 집으로 와 버렸다.

① '마당'은 ㉠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② '약간'은 ㉠에 해당되고 ⓑ에서는 자립 명사로 사용되었다.
③ '바퀴'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의존 명사로 사용되었다.
④ '가지고'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⑤ '버렸다'는 ㉡에 해당되고 ⓔ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국어에는 ㉠ 유음화, ㉡ 'ㄹ'의 비음화, ㉢ 구개음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ㄴ 첨가 같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있다. 대부분의 표준 발음에는 이러한 음운 변동이 적용돼 있다. 그런데 음운 변동이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여 [자료]의 ⓐ~ⓔ가 비표준 발음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료]

예	표준 발음	비표준 발음
ⓐ 인류가	[일류가]	[인뉴가]
ⓑ 순환론	[순환논]	[순활론]
ⓒ 코끝이	[코끄치]	[코끄티]
ⓓ 들녘을	[들녀클]	[들녀글]
ⓔ 봄여름	[봄녀름]	[보며름]

① ⓐ는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② ⓑ는 ㉡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③ ⓒ는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는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는 ㉤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자료]의 밑줄 친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가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료]에 나타난 체언과 조사

- 체언 : 妙光(묘광), 네, 燈明(등명), 然燈(연등), 스숭, 釋迦(석가), 道(도), 나, 부텨, 말ᄊᆞᆷ
- 조사 : 이, 을, ㅅ, 롤, ㅣ, 의, 올

[자료]

○ 妙光이 네 燈明을 돕ᄉᆞ바 然燈ㅅ 스스이 <u>ᄃᆞ외시고</u> 이제 釋迦를 돕ᄉᆞ바 燈明ㅅ 道를 <u>니ᅀᅳ시며</u>

[현대어 풀이 : 묘광이 옛적 등명을 도와 연등의 스승이 되시고 이제 석가를 도와 등명의 도를 이으시며]

○ 내 부텨의 말ᄊᆞᄆᆞᆯ <u>ᄒᆞᄉᆞᄫᆞᄃᆡ</u>

[현대어 풀이 : 내가 부처께 말씀을 드리되]

높임 표현	높이는 대상
ᄃᆞ외시고(ᄃᆞ외-+-시-+-고)	㉠
니ᅀᅳ시며(닏-+-으시-+-며)	㉡
ᄒᆞᄉᆞᄫᆞᄃᆡ(ᄒᆞ-+-ᅀᆞᆸ-+-오ᄃᆡ)	㉢

	㉠	㉡	㉢
①	妙光(묘광)	妙光(묘광)	부텨
②	妙光(묘광)	妙光(묘광)	말ᄊᆞᆷ
③	스숭	妙光(묘광)	부텨
④	스숭	스숭	말ᄊᆞᆷ
⑤	스숭	스숭	부텨

39.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조건]

○ 안긴절이 한 번만 나타날 것.
○ 안긴절에는 짧은 부정 표현이 나타날 것.
○ 안은문장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설 것.

① 그는 한동안 차갑지 않은 음식만 먹었었다.
② 그는 바쁜 업무들이 안 끝났다고 통보했다.
③ 나는 결코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④ 나는 그 버스가 제때 못 올 것을 예상한다.
⑤ 나는 그가 못 읽은 소설을 이미 다 읽었다.

[40~42] (가)는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학생회에서 발송한 뉴스레터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희경 : 얘들아, 안녕? 뉴스레터 8월 호 제작 회의를 시작할게! 오늘 회의는 '따끈따끈 소식' 기사 내용 선정, '사람을 만나다' 면담 대상자 및 기사 내용 선정, '학생회 소식' 기사 내용 선정 순으로 진행할게. 먼저 '따끈따끈 소식'에는 어떤 기사를 담을까? … ㉠

승민 :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운동장 야영을 다루면 어때? 2학기는 8월에 신청하는데, 1학기에도 경쟁률이 정말 높았어.

한빛 : 좋아! 경쟁률이 높아서 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되니 선정된 학생들의 작성 비결을 다루면 좋겠어. …… ㉡

희경 : 그래.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에 대해 다루자. 또 하나는?

정희 : 난 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 고르기가 힘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빌린 책 순위를 보고 빌려.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순위를 알려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느 반이 책을 많이 빌리는지 그 순위도 궁금해할 거 같지 않아?

윤찬 : 그건 책을 고르는 것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출 순위만 알려 주자. 학생들이 1학기에 많이 빌린 책 목록을 받아 놓은 게 있어. 찾아서 올려 줄게.

희경 : 알았어. 그럼 '사람을 만나다'에서는 누구를 만날까?

재환 : 우리 반에 노래 대회에서 우승한 친구가 있는데 구독하는 학생들도 궁금해하니 그 친구는 어때? 학생들에게 인기라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해.

민하 : 맞아. 유○○을 말하는구나. 면담 대상으로 좋은 듯해. 대회에서 부른 노래, 대회 참가 소감을 다루면 좋겠네. 내가 대회 공식 영상 링크를 올려 줄게.

'제3회 ◇◇ 노래 대회' 우승……
https://gutds.com/yJdShG

민하 : https://gutds.com/yJdShG …… ㉢

한빛 : 정말 잘 부른다!

희경 : 그러게. 이제 한 명만 남았네?? 누구에 대해 다루는 게 좋을까??? … ㉣

범석 : 이번 호에는 박□□ 선생님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게 어떨까?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셔서 9월부터는 학교에서 뵐 수 없으니 학교에 계실 때 뵙고 이야기를 나누자.

수민 : 좋은 생각이야. 이제 교단을 떠나시니 교사로서의 삶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어때?

윤찬 : 1학기 도서 대출 현황.pdf …… ㉤

빌린 책 순위가 여기 나와 있어. 이걸 활용해서 기사를 쓰자.

희경 : 좋아. 박□□ 선생님과 면담한 내용으로 기사를 쓰자. 윤찬아, 확인했어. 그 내용으로 하자. 이제 '학생회 소식'에서 다룰 내용을 정해야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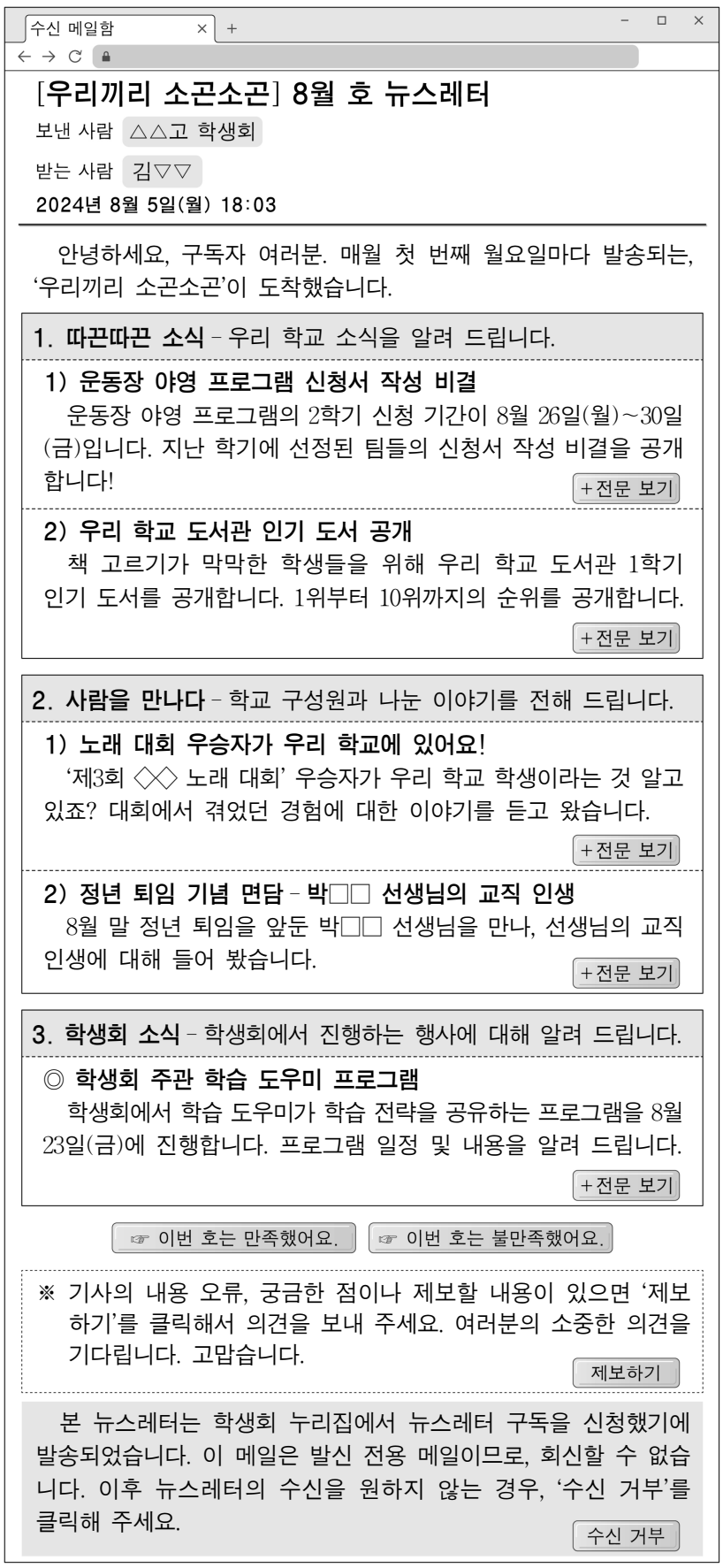
혜정 : 8월의 학생회 행사는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뿐이야. 23일에 하는데, 1학기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많았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기사를 쓰면 어때?

지호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을 안내해 주면 참가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 내용으로 기사를 쓰자.

희경 : 좋아. 이제까지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뉴스레터를 만들자.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나)



40. (가)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회의할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대화 참여자에게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 주었다.
② ㉡: '승민'의 발화 일부를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③ ㉢: 영상 링크를 전송하여, '재환'의 의견에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④ ㉣: 물음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한빛'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⑤ ㉤: 파일을 전송하여, '희경'이 자신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41.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뉴스레터는 학생회 누리집을 통해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 발송된다.
② 뉴스레터는 구독자에게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발송된다.
③ 뉴스레터 구독자는 '전문 보기'를 통해 이전 호 뉴스레터를 볼 수 있다.
④ 뉴스레터 구독자는 '제보하기'를 통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⑤ 뉴스레터 구독자는 이번 호 뉴스레터에 대한 만족 여부를 표현할 수 있다.

42. (가)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나)를 제작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따끈따끈 소식'에는 구독자 관심사에 대한 '승민'과 '한빛'의 대화를 반영하여,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 비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② '따끈따끈 소식'에는 구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희'와 '윤찬'의 대화를 반영하여, 도서 대출을 많이 한 학급 순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③ '사람을 만나다'에는 면담 대상자의 화제성에 대한 '재환'과 '민하'의 대화를 반영하여, 노래 대회 참여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④ '사람을 만나다'에는 면담 시기의 시의성에 대한 '범석'과 '수민'의 대화를 반영하여, 정년 퇴임을 앞둔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⑤ '학생회 소식'에는 기사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혜정'과 '지호'의 대화를 반영하여,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3~45] 다음은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준호의 일상 블로그 준호 님, 반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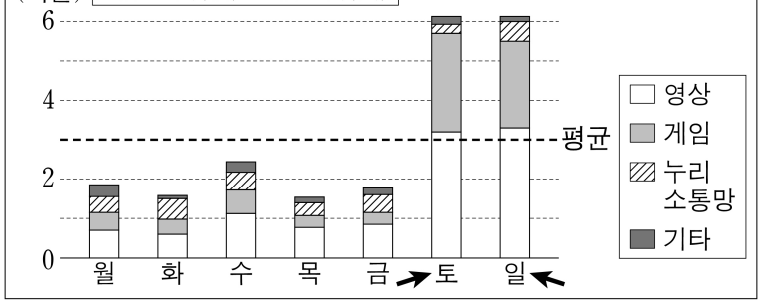
공지 사항	나의 일상	나의 영상	유용한 정보

제목 : 나의 스마트폰 사용 이야기 2024.09.02. 19 : 35

스마트폰을 얼마나,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용 시간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스마트폰 사용 현황 및 분석≫

아래는 일주일간 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자료예요.



지난주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3시간 정도**였어요.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토요일 ㉠ 및 일요일에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 주로 영상 시청과 게임을 했더라고요. 주말엔 영화도 보고, ㉢ 최근 요리사로 진로를 정하고 자격증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많이 봐 그런 것 같아요. ㉣ 게다가 주말에 몰아서 게임을 해서 주말 사용 시간이 많은 듯했어요. 반면에 영상이나 게임에 비해 누리 소통망 사용 시간은 적은 ㉤ 편이었어요. 누리 소통망을 주변 사람과만 사용해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

사용 시간 자료를 보니,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사용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로 취미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진로를 위해서도 사용하려고 실천 방안을 세웠어요.

'요리 공부 시간 늘리기'
'요리 연습 영상 일지 올리기'
'요리로 소통 넓히기'

첫째, 요리 공부 시간 늘리기. 요리 공부는 많이 하지 못해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뿐 아니라 요리하는 영상도 보려고요. 둘째, 요리 연습 영상 일지 올리기. 음식을 취미로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조리법에 맞게 제대로 요리해 볼 생각이에요. 또 요리하는 영상 일지를 블로그에 올려 요리 실력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셋째, 요리로 소통 넓히기.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들과 누리 소통망을 활용해 조리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 볼까 해요. 잘할 수 있겠죠?

댓글 3 ♥좋아요 8 [댓글 쓰기] [좋아요]

↳ 친하리 저도 사용 시간을 확인하니, 일일 평균이 2시간이고, 준호 님과 달리 평일에 더 썼네요. 평일엔 공부 관련 내용을 많이 찾아보는데, 주말엔 봉사 활동을 해서 스마트폰을 쓸 틈이 없었어요.

↳ 역사랑 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은 스포츠 분야만 봤어요.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이제부터 역사에 대한 영상도 볼 거예요. 그리고 누리 소통망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에만 썼어요. 누리 소통망은 준호 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정보를 공유해 볼 생각이에요.

↳ 꿈자람 스마트폰을 진로와 취미에 적절히 사용하겠다는 것과 일지를 쓰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글 내용에 공감했어요. 전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일지를 작성해 올릴 거예요. 상황에 따라 촬영 방법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쓰면 사진 찍는 기술이 향상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취미인 전자책 읽기도 하면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해 보려고요.

43. '준호'의 글에 나타난 정보 구성 및 제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제목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③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④ 글의 정렬 방식에 변화를 주어 스마트폰 사용 시 시간대별 유의 사항을 부각하고 있다.
⑤ 화살 모양의 표지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사용 현황의 일부에 주목하도록 표시하고 있다.

44. '준호'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하리'는 자신이 평일보다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적은 이유를 드러내었다.
② '준호'가 언급한 영상 시청 분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랑'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상을 추가적으로 시청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③ '준호'가 언급한 누리 소통망 활용 목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랑'은 누리 소통망으로 자신이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과 화제를 드러내었다.
④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자람'은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⑤ '준호'가 언급한 일지 작성의 효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꿈자람'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일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드러내었다.

4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나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② ㉡: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가운데 영상 시청과 게임이 중심이 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③ ㉢: 요리사로서의 꿈을 꾸게 된 때가 자격증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된 때보다 나중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④ ㉣: 스마트폰으로 주말에 영상 시청과 게임 중 더 많이 한 일이 무엇인지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⑤ ㉤: 누리 소통망을 주변 사람과만 사용해서 누리 소통망 사용 시간이 적은 것이 당연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④	2	18	①	2	35	⑤	2	35	④	2
2	⑤	2	19	③	2	36	②	2	36	③	2
3	②	3	20	⑤	2	37	①	2	37	④	2
4	④	2	21	⑤	3	38	⑤	2	38	①	2
5	④	2	22	③	2	39	②	2	39	⑤	3
6	③	3	23	①	2	40	⑤	3	40	①	2
7	①	2	24	④	2	41	④	2	41	③	2
8	④	2	25	④	3	42	③	2	42	②	2
9	⑤	2	26	⑤	2	43	②	2	43	④	2
10	②	2	27	③	2	44	④	2	44	④	3
11	③	3	28	④	2	45	④	3	45	②	2
12	①	2	29	③	2						
13	③	2	30	⑤	2						
14	⑤	2	31	②	3						
15	①	2	32	①	2						
16	⑤	3	33	③	2						
17	①	2	34	③	3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훈민정음 반포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을 보면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훈민정음』(해례본)의 팔종성가족용, 즉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는 세 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보이는데 예외가 되는 표기가 서로 달랐다.

[A] 고유어의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에서도 이들은 차이가 난다.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은 이어 적기 방식을 취했다. 다만,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ㆁ'일 때 '쥬의'(중의)처럼 이어 적기도 하고, '즁으란'(중은)처럼 끊어 적기도 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ㆁ, ㄴ, ㅁ, ㄹ, ㅿ'일 때와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ㄴ, ㅁ'일 때 끊어 적기를 하였고, 그 밖에는 이어 적기를 하였다. 다만, '쑤늘', '말ᄊᆞ물', '우수믈'에서는 이어 적기가 보인다.

사잇소리 표기에서는, 『용비어천가』는 'ㄱ, ㄷ, ㅂ, ㅅ, ㆆ, ㅿ'을 썼는데, 이 가운데 'ㅿ'은 '나랗 일훔'(나라의 이름), '님긊 ᄆᆞᅀᆞᆷ'(임금의 마음), '바ᄅᆞᆯᇙ 우희'(바다의 위에) 등과 같이 모음 및 'ㄴ, ㅁ, ㄹ'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석보상절』은 사잇소리 표기에 'ㅅ'을 썼지만 'ㅅ' 대신 'ㄱ, ㄷ, ㆆ'을 쓰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사잇소리 표기를 'ㅅ'으로 통일하였다. 이후 문헌에서 사잇소리 표기는 'ㅅ'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현대 국어에서 '촛불'의 'ㅅ'처럼 합성어의 사잇소리 표기에 남아 있다.

한자를 적을 때는, 『용비어천가』는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하였으며,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하였다.

한편 『용비어천가』는 'ᄫᅴ'을 가진 'ᄃᆞᄫᅴ다'(되다), 'ᄒᆞᄫᅴᅀᅡ'(혼자)를 이 형태로만 썼는데, 『석보상절』은 'ᄃᆞᄫᅴ다'는 'ᄃᆞᄫᅴ다'나 'ᄃᆞ외다'로 썼고 'ᄒᆞᄫᅴᅀᅡ'는 'ᄒᆞ오ᅀᅡ'로만 썼으며, 『월인천강지곡』은 각각 'ᄃᆞ외다', 'ᄒᆞ오ᅀᅡ'로만 썼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높고'와 '빛'은 팔종성가족용의 원리에 어긋나는 예이다.
② '오ᄂᆞᆯ'(오늘)과 '날' 사이의 사잇소리 표기는 『용비어천가』에서는 'ㅿ', 『월인천강지곡』에서는 'ㅅ'을 썼다.
③ 현대 국어 '바닷물'의 'ㅅ' 표기는 중세 국어 사잇소리 표기에서 유래하였다.
④ 중세 국어 한자음이 '텬'인 '天'은 『석보상절』에서 '天텬', 『월인천강지곡』에서 '텬天'으로 적었다.
⑤ '혼자'의 중세 국어 표기는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세 문헌을 통틀어 세 가지가 나타난다.

36. [A]와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 뎌녁 ⓐ ᄀᆞᅀᅢ(ᄀᆞᄉᆞ+애) 걷나가샤 -『석보상절』
[저쪽 가에 건너가시어]
○ 뫼화 그르세 ⓑ 담아(담-+-아) -『월인천강지곡』
[모아서 그릇에 담아]
○ ⓒ 누네(눈+에) 빗 봄과 -『석보상절』
[눈에 빛 봄과]
○ 쏜 살이 세 낱 ⓓ 붊ᄲᅮᆫ(붊+ᄲᅮᆫ) 뻬여디니 -『월인천강지곡』
[쏜 화살이 세 개 북만 꿰어지니]
○ 너희 ⓔ 스숭니믈(스숭+-님+을) 보ᄉᆞᆸ고져 ᄒᆞ노니 -『석보상절』
[너희 스승님을 뵙고자 하니]

① ⓐ는 『용비어천가』에서 'ᄀᆞᅀᅢ'로 적혀 있겠군.
② ⓑ는 『석보상절』에서 '다마'로 적혀 있겠군.
③ ⓒ는 『월인천강지곡』에서 '눈에'로 적혀 있겠군.
④ ⓓ가 조사 '을'과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붊을'로 적히겠군.
⑤ ⓔ가 조사 '이'와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스스이'나 '스숭이'로 적히겠군.

37. 밑줄 친 두 단어가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동일한 모습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 이들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 동음이의어 관계(예 단풍 철 : 철 성분)나 연관성이 있는 ㉡ 다의어 관계(예 머리를 깎다 : 배의 머리)에 놓인다. 다의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닌 것인데, 이때 그 구체적 의미가 달라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 용언이 다의어일 때는 ㉢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 물론 다의어의 각 의미 간에 유의어나 ㉣ 반의어가 같은 경우도 있고 ㉤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다.

① ㉠
- 난로에 불을 피웠다.
-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

② ㉡
- 이곳엔 가위표를 치는 거야.
- 구슬 치는 아이가 있다.

③ ㉢
-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 마.

④ ㉣
- 배우가 엷은 화장을 했다.
- 아이가 엷은 잠에 들었다.

⑤ ㉤
-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
-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찰음			ㅈ ㅉ ㅊ		
마찰음		ㅅ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국어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한 위 표를 바탕으로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자료]

ⓐ 덧쌓는[덛싼는] ⓑ 속력도[송녁또] ⓒ 읽었고[일걷꼬]
ⓓ 겉옷만[거돈만] ⓔ 맞붙임[맏뿌침]

① ⓐ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② ⓑ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고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③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
④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⑤ ⓔ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간접 인용될 때 원 발화의 인칭·지시·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 조정되며,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격식체든 비격식체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한 가지로 한정된다.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평서), '보냐고'(의문), '보라고'(명령), '보자고'(청유)처럼 나타난다. 감탄형 어미는 평서형으로 실현된다(예 보는구나 → 본다고).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자 료>

○ 그는 그제 우리에게 ㉠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 김 선생은 ㉡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 어제 나한테 ㉢ 네가 내일 퇴원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

① ㉠은 '모레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② ㉠의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③ ㉡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④ ㉡의 '좋아한다'는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없다.
⑤ ㉢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40~43] (가)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고, (나)는 방송을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푸근 : 안녕하세요? '푸근의 지식 창고' 채널의 푸근입니다.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을 띄울게요. 오늘은 공학 박사이신 전선 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전선 : 안녕하세요! 전선입니다.
푸근 : 오늘 나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전선 :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푸근 : ⓐ 제가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갔다가 현지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기지 않아 휴대 전화 충전에 애를 먹었어요.
전선 : 그랬군요. 우리나라와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차이가 있죠.

[A]
가을비 전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나라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겨야 해서 번거로워요.

푸근 : 가을비 님, 맞아요. 번거롭죠. 전선 님, 그런데 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른가요?
전선 : 일본은 전기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 나라마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다 보니 '플러그와 콘센트'의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띄워 주실래요?
푸근 : 네. 화면을 나눠서 이미지를 띄울게요. 질문이나 의견은 계속 올려 주세요.

전선 : 화면에 나오는 A형, B형은 모두 미국과 일본에서, C형, F형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B]
아침 '플러그와 콘센트'도 국제 표준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도 하네요. 왜 그렇죠?
풍경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침 님, 풍경 님.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1986년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N형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많은 나라가 이미 독자적으로 표준을 정했었고, 그러다 보니 국제 표준 규격을 채택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푸근 :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원래 A형을 쓰지 않았나요?
전선 : 네. 110V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A형을 썼었어요. 그러다 열악한 전력 사정을 고려해서 110V에 비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은 220V로 바꾸는 승압 사업을 197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플러그와 콘센트'도 C형, F형으로 바꿨죠.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C]

눈썹달 220V로 전압을 높이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본은 왜 220V로 안 바꾼 거죠?

해맑음 1991년쯤, 저희 집 콘센트를 220V용으로 바꾼 기억이 나요. 그럼 A형에서 C형이나 F형으로 바뀐 거죠?

전선 : 해맑음 님, 맞습니다. 눈썹달 님, ⓒ 한 나라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서요. 우리도 30년 넘게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됐어요.

푸근 : ⓓ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전선 님 일정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환아빠 근데 '플러그와 콘센트'는 누가 처음 만들었나요? 처음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였나요?

전선 : 감사합니다.

푸근 : 지환아빠 님, 방금 올리신 질문과 관련된 자료는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로 대신할게요. 바로 올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푸근 〔자료〕 - '플러그와 콘센트'의 발명과 변화 과정 (링크 주소 : https://k34imj1.co.kr/1fjg) ……ㅁ

ⓔ 오늘 영상은 제 채널의 '다시 보기'에 올려 두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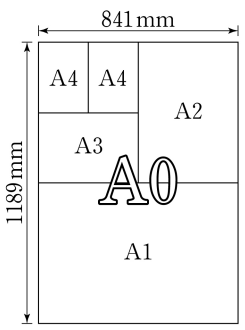
(나)

예서의 지식 이야기 ×

〔국제 표준 규격의 사례 — A열 용지〕

'푸근의 지식 창고' 실시간 방송에서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규격이 사용된다는 내용을 봤어요.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채널에 있는 '다시 보기' 영상 56화의 '1분 5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방송 후, 국제 표준 규격이 널리 사용되는 사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A열 용지가 있었어요.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릴게요. (제가 본 자료는 하단에 파일을 첨부해 뒀어요.)



〈A열 용지 국제 표준 규격〉

1. A열 용지의 비율

A열 용지의 가로와 세로 비율은 1 대 $\sqrt{2}$ 정도입니다. 사진을 보면 크기가 달라도 비율이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 제정과 그 이유

독일공업규격위원회에서 A열 용지의 표준 규격을 정했고, 이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정했어요. 종이를 반으로 자를 때 버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 국제 표준으로 정했다고 해요.

A열 용지 국제 표준 규격 자료.pdf 다운로드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실시간 방송이 이뤄지고 있는 채널 이름이 화면의 좌측 상단에 제시되었다.
② ㉡: 실시간 방송에서 다룰 내용을 드러내는 자막이 제시되었다.
③ ㉢: 실시간 방송 화면에 실시간 대화창이 보이도록 제시되었다.
④ ㉣: 실시간 방송의 출연자들이 함께 나타나도록 분할된 화면이 제시되었다.
⑤ ㉤: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남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가 제시되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 '가을비'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언급하며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드러내었다.
② [B]: '아침'은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대한 배경지식을 언급하며 '플러그와 콘센트'의 규격이 국가에 따라 다르기도 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③ [B]: '풍경'은 국제 표준 규격 제정의 효과를 언급하며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다.
④ [C]: '눈썹달'은 220V로 승압하는 것의 장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220V로 바꾸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⑤ [C]: '해맑음'은 승압 사업에 따른 경험을 언급하며 승압으로 인해 바뀐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42. (나)의 정보 제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소제목을 붙여 제시하였다.
②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다시 보기' 영상의 출처를 글자를 기울여서 제시하였다.
③ A열 용지의 비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열 용지 규격을 보여 주는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④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을 제시하였다.
⑤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탐색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제시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연결 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조건임을 나타낸다.
② ⓑ: 보조 용언 구성 '-다 보다'와 연결 어미 '-니'를 사용하여, '플러그와 콘센트' 모양의 다양화를 초래한 원인을 나타낸다.
③ ⓒ: 조사 '밖에'와 형용사 '없다'를 사용하여, 승압 사업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큼을 이중 부정을 통해 강조한다.
④ ⓓ: 종결 어미 '-네'를 사용하여, 승압 사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 보조 용언 구성 '-어 두다'와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영상을 채널에 올려놓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44~45] (가)는 학생회에서 제작한 팸플릿이고, (나)는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24학년도 ○○고 참별빛제

〔일자: 2024년 12월 20일(금)〕

참별빛제 일정 안내

동아리 부스 (09:00 ~ 12:00)

토론 한마당 (13:00 ~ 14:30) / 세계 음식 체험 (13:00 ~ 14:30)

댄스 공연 (14:40 ~ 16:30)

행사별 장소 안내

동아리 부스	강당
토론 한마당	시청각실
세계 음식 체험	가사실
댄스 공연	강당

동아리 부스 행사 안내

◎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 안내
- 보고서 발표: 독서, 신문 동아리
- 작품 전시: 미술, 사진 동아리
- 체육 이벤트: 농구, 탁구 동아리

QR 코드를 찍으면 부스별 활동 소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유의 사항 안내

행사	유의 사항
동아리 부스	작품이나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토론 한마당	출입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세계 음식 체험	조리 기구 사용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댄스 공연	무대 앞으로 몰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나)

서은: 얘들아, 참별빛제 팸플릿 보낼게. 이걸 보고 '미리 보는 참별빛제' 게시판을 만들어 보자. '동아리 부스'는 학생회 주관이 아니니 제외하고, '세계 음식 체험'부터 얘기해 줘.

서은: 참별빛제 팸플릿.jpg

종우: 2개 음식 중 1개를 선택해서 체험하는 거니까 음식 이미지를 보여 주면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혜린: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재밌어 하겠다! 음식 설명까지 해 주면 어떤 음식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

승윤: 또 조리법 파일을 올려서 애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음식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경: 맞아. 작년에 체험에 참여했었는데 음식 만들기 직전에 조리법을 받았더니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어. 그러니 게시판에 올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은: 모두 반영할게. 이제 '토론 한마당'에 대해 얘기해 보자.

승윤: 본선 진출 팀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 진출한 팀을 알려 주면 관전을 고민하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혜린: 맞아. 관전하러 온 애들이 많으면 본선에 진출한 애들도 좋아할 거야. 그럼 어떤 팀이 맞붙는지 알 수 있게 본선 대진표를 올려 두자.

나경: 우승 팀 예상 투표를 진행하는 건 어때? 예선전 영상을 보여 주고 투표하게 하면 토론을 많이 보러 올 거 같아.

근수: 좋아! 자기가 투표한 팀이 우승하는지 보러 많이 올 듯해.

서은: 찬성! 투표 제목은 '우승 팀을 맞혀라!'가 괜찮겠어. 의견이 더 없으면 '댄스 공연'으로 넘어가자.

근수: 애들은 '댄스 공연'을 제일 기대해.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지 팀별 연습 영상을 올리면 애들이 좋아할 거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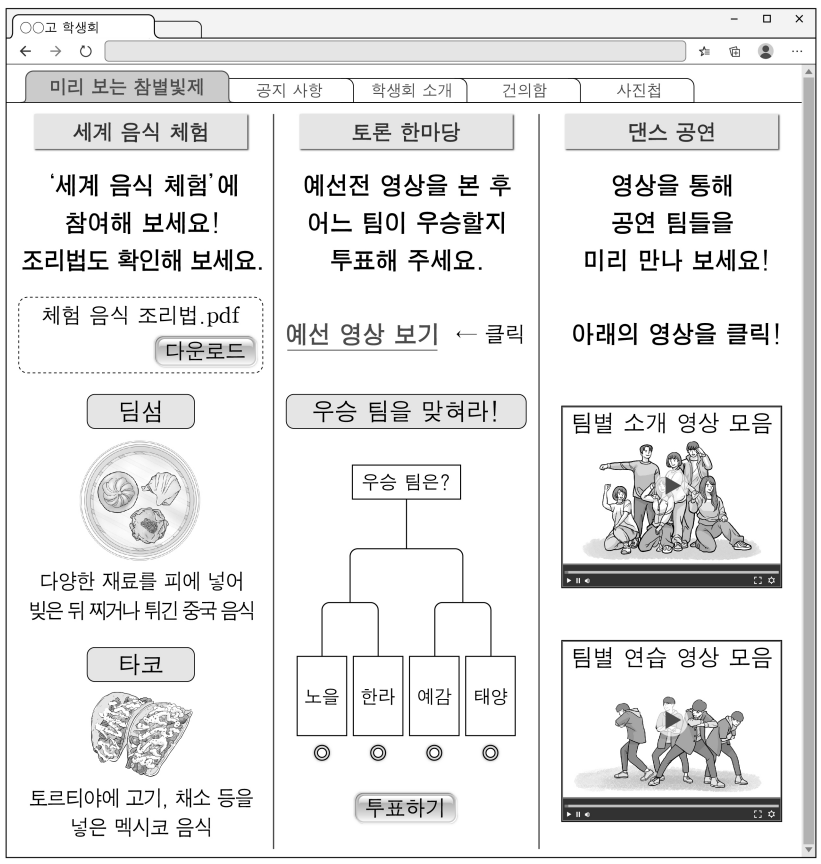
종우: 맞아! 누가 나가는지도 궁금해하더라. 참가 신청할 때 받아 둔 팀 소개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거야.

서은: 고마워.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반영해서 학생회 누리집에 '미리 보는 참별빛제' 게시판을 만들게.

4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② 안전을 위한 행사별 유의 사항을 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동아리 부스별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④ 각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모양의 기호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⑤ 동아리 부스 행사에 참여하는 동아리를 활동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을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세계 음식 체험'에는 음식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종우'와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음식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하였다.
② '세계 음식 체험'에는 조리법 정보 제공 시기에 대한 '승윤'과 '나경'의 대화를 반영하여 조리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올려 두었다.
③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진출 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승윤'과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본선에서 겨루는 팀을 확인할 수 있는 대진표를 제시하였다.
④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관전 유도 방안에 대한 '나경'과 '근수'의 대화를 반영하여 예상 우승 팀에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⑤ '댄스 공연'에는 영상 제공 효과에 대한 '근수'와 '종우'의 대화를 반영하여 팀별 소개 영상 및 연습 영상을 올려 두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공통 과목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8	②	2	35	②	2	35	⑤	2
2	④	2	19	④	2	36	④	2	36	④	3
3	⑤	3	20	①	2	37	③	2	37	③	2
4	④	2	21	④	3	38	④	2	38	①	2
5	⑤	2	22	④	2	39	⑤	2	39	②	2
6	③	2	23	⑤	2	40	④	3	40	④	2
7	②	2	24	②	2	41	③	2	41	③	2
8	①	3	25	②	3	42	①	2	42	⑤	2
9	②	2	26	①	2	43	①	2	43	②	2
10	③	2	27	①	2	44	⑤	2	44	①	2
11	①	2	28	④	2	45	②	3	45	③	3
12	⑤	2	29	③	2						
13	③	3	30	⑤	2						
14	①	2	31	④	3						
15	②	2	32	③	2						
16	②	3	33	⑤	2						
17	③	2	34	②	3						